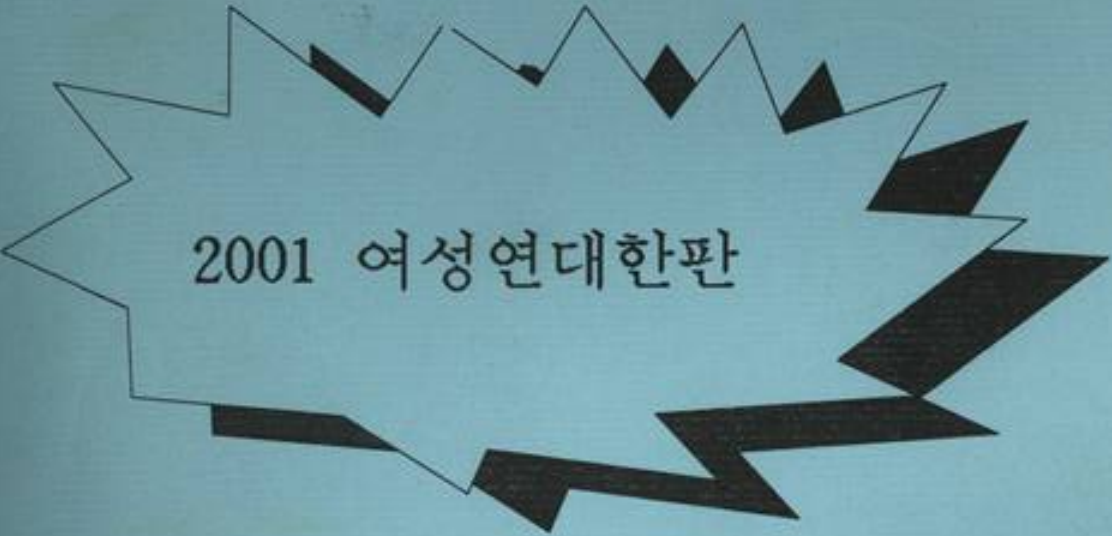


100401

5.68200

은.



2001 여성연대한판

2001년 8월 10-12일 연세대학교

Contents

01 한판을 기획하며 02

04 여성연대한판 일정

Program 소개 05

08 성매매 포럼

'성매매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안하며
성매매알선행위등방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토론

성매매 기초교양 28

당신과 나는 성매매를 얘기해 보자. 지금, 이 곳에서.

46 여성운동 대토론회

대학여운단위에서의 여성노동 역사
관악 여성 운동의 시각 및 방향에 대한 토론
연(세)대에서 여성노동운동 돌아보기, 우린 이제 시작이다!

영상물 <밥·꽃·양>을 소개합니다 60

64 반성폭력 운동 토론회

Normal Campus, Abnormal Feminist

'여성' 공간을 사고한다

공동체 Program 소개 74

바이러스팀과 함께 Shake your body!

75 대학 여성운동 관련 정보들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하여



01년 한판을 기획하며

여는 글 ■ 비

“땅으로 내려온 여자들의 불온한 연대,
도도한 강물로 흘러라!”

1> 땅으로 내려온 '적'가부장제 여자들, 불온한 연대를 펴하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여성연대한판은 기간의 여성운동을 총화하고, 개별 단위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힘들게 투쟁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서로의 소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힘을 주고받는 어우러짐의 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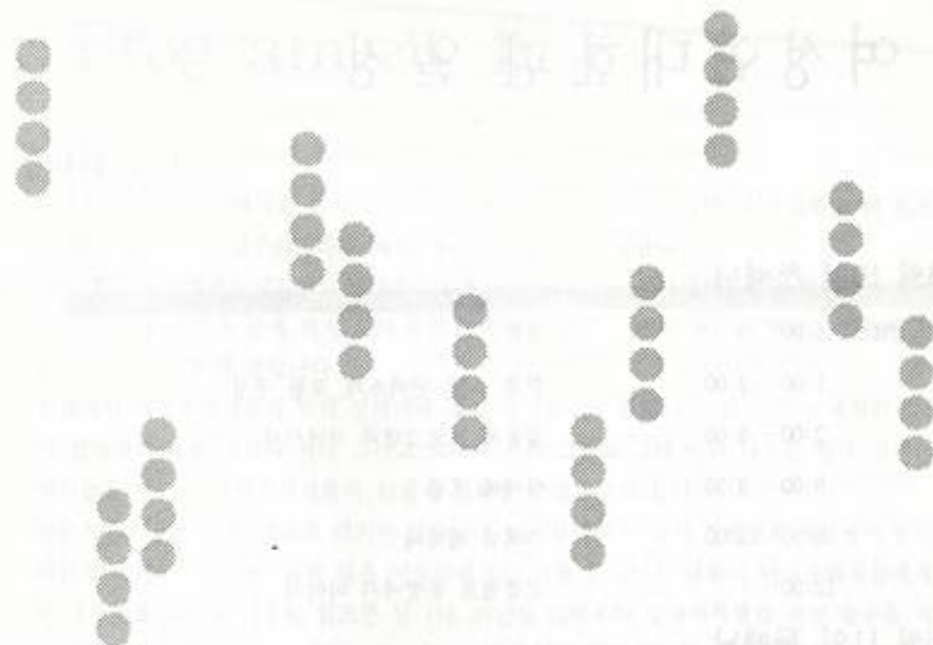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대학내 여성운동의 지형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반(反)성폭력 학칙이나 현 시기 여성노동운동 등에서 보여지듯 캠퍼스 상황도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달라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단(簡斷)없이 '차이'라 이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연대할 수 있는가, 혹은 해야 하는가?

이에 그동안 소아병적으로 매달려 온 '연대'의 이름에 들춰진 신화와 낭만화를 조심스레 탈각해내며, 구체적으로 변화해 온 여성운동의 지형을 짚어보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연대를 모색하는 것. 그것이 01년 한판을 기획하게 된 문제의식의 출발입니다. 어쩌면 비판 없이 답보해 온 것들, 무심코 혹은 관성적으로 복무(?)해 온 연대의 '당위'에 대한 준열한 성찰을 통해 진정한 힘이 되는 여성주의자 연대를 획책하는 것.

— 여성연대한판의 오늘입니다.



2> 여성주의 — 낮과 밤의,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는 도도한 강물로 흘러 이육고 세계를 변혁하리라!

진실과 진실의 아우라들은 밤의 장막 속에 숨겨져 있었다.

신이 말하기를,

'여성주의'여 태어날지이다!

— 그리고는 모든 것이 빛이었다.

안녕?! 목을 물어뜯으며 달려드는 저 광막한 눈동자의 대지에

뚝뚝 피를 쏟으며 '함께' 섰는, '함께' 싸우는

여성주의자 동지들이여!

한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여성연대환판 일정

8월 10일 첫째날

PM	1:00	집합
	1:00~ 2:00	환판 소개, 단위소개, 모듬 구성
	2:00~ 6:00	공동체 프로그램과 저녁식사
	6:00~ 8:30	성매매 포럼
	8:30~12:00	주제별 세미나
	12:00~	모듬별로 풀밭에서 이야기

8월 11일 둘째날

AM	9:00	기상
	9:00~10:00	요가 및 아침식사
	10:00~ 1:00	여성노동 대토론회
PM	1:00~ 2:00	점심
	2:00~ 5:00	영상물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5:00~ 7:00	공동체 프로그램 및 저녁식사
	7:00~10:00	반성폭력 토론회
	10:00~	문화제

8월 12일 셋째날

AM	9:00~10:00	아침식사
	10:00~ 1:00	토론회(100인위 / 월장)
PM	1:00~ 2:00	모듬별 평가 및 전체평가
	2:00~	해산

♀ Program 소개

우 성매매 포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춘 문제에 무심하며, 어쩌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무심하고 더 모르는 듯도 합니다. 이는 여성주의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남성중심성에 문제제기 하며 성매매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환판에서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성매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발현으로서 성매매에 대한 남성의 시각 그리고 국가의 시각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오는 법과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여성주의자들의 관점과 전략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 '성매매'란 것이 성매매된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직은) 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덧붙여 여성주의자들에게는 어떤 것인지를 고민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성매매특별법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STOP(Sex-Trafficking Obligation Project) 모임의 활동가들과 함께 성매매와 그 법에 대한 진지하고 급진적인 논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 성매매 세미나

매춘, 매매춘, 성매매... 도대체 뭘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여기에 반대한다는 건 얼마나 현실성 있는 생각일까? 페미니스트의 자족적 관점 아닌가? 아니야.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뭘까... 많은 질문들이 오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답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만들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산업 현실이라든지 매춘여성실태에 대해, 그리고 좀 더 기본적으로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해 그리고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과 무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성매매에 대해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고민 끝에 혼란에 빠져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논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여서, 성매매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우 주제별 세미나

정통운 사안과 사이버 페미니즘/에코 페미니즘/레즈비어니즘과 페미니즘/남성활동가와 페미니즘/모성보호법/연애 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 이와 같은 주제로 자유로운 형식의 주제별 세미나 진행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에 관해 여러 여성주의자들과 고민을 나누어 봅시다.

우 여성노동대토론회 — 소통하기 그리고 함께 고민하기

여성노동. '여성'이라는 의제만으로 너무나 벽한데 거기에 그 딱딱한 '노동'까지, 게다가 지루한 '토론회'라, 어허... 참 어렵죠?

어렵고 부담스러운 '여성노동'이지만 많은 단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많은 단위들에서는 그 부담감과 무게감에 짓눌려 활동은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서도 뭔가 찝찝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지형에서 모두들 나름의 방식으로 여성노동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성노동토론회에서는 각 단위에서 여성노동을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들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같음과 다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그간의 여성주의에서의 여성노동운동들을 총화하고, 현재 여성운동에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모성보호법투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투쟁한 단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위들도 많았습니다. 투쟁이 일단락지어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이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여성노동사안은 아직까지 여학원단위에서 소화해내기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길을 찾는 데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노동토론회 꼭 오실거죠?

우 여성노동자영상보고서 <밥·꽃·양>

이 필름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집단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식당 여성노동자들을 향해 렌즈를 밀착하고 포커스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필름의 테마는 98년 훨씬 이전의 기억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의 어떤 사건에 불현듯 물음을 던지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필름 보고서는 "늙은 식당 여성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밀한 포착이자 구체적인 다양한 화두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우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 토론회

성폭력은 대학내 여성운동에서 여러 해 동안 중요하게 사고되었던 주제이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학칙제정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몇 년간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은 반성폭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학내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열심히 투쟁해 왔고 그 내용적 실물적 성과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반성폭력 운동이 소위 소강상태 혹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성폭력을 인지하는 수위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만 내딛으면 여전히 존재하는 '성폭력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의 정의 정

도는 줄줄 외지만 실제로 사건이 터지면 그런 개념은 그저 종이 위의 철자일 뿐인 것입니다. 다들 지겹다고 또 성폭력 타령이라고 하지만 사건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피해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몇 년간 열심히 투쟁해 왔던 것을 잠시 돌아보면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우리의 논리와 전략들을 새롭게 논의해 봅시다. 그동안 헛갈렸던 문제들도 꺼내놓고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여전히 문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여성들의 언어로 터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 100인위원회와 반성폭력 운동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는 일련의 해프닝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피해자들의 언어로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겠노라고 목소리를 낸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학 여성주의자들과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공간에서 운동을 만들어나갔지만 100인위의 활동은 피해자 범주의 확장, 가해자 실명공개라는 전략, 피해자의 경험에 입각한 성폭력 규정 등 대학 여성주의자들에게도 유의미한 여러 논쟁적인 주제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화두는 '반성폭력 운동의 전략 혹은 성폭력 사건 해결 원칙으로서의 가해자 실명 공개'입니다. 미처 100인위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뜨거운 논쟁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 월장과 사이버상의 투쟁전략

월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군가산제 이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투쟁의 전략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통신공간에서의 싸움'이라는 난제에 우리를 다시금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극 힘든 싸움을 진행 중인 월장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다양한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 공동체프로그램 - 바이러스팀과 함께 shake your body!

여성연대한판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여성주의자들과의 만남이 아닐까요. 처음 만나는 이들과도 꼭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와중에 느껴지는 우리만의, 여성들의 유대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분명 즐겁고 멋진 경험일 겁니다.

이번 2001년 여성연대한판기간에 바이러스팀은, 이렇게 새로운 여성주의자들을 만나고, 또 서로 알고 지내던 여성주의자들은 더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공동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몸으로 부대끼고 함께 땀흘리면서, 끈적해지는 모두의 몸보다 더 끈적해질 우리만의 연대감을 확인해봅시다.

바이러스팀과 shake your body!

8월 10일 - 2시~4시 : 두레짜기, 몸으로 자기소개하기

4시~5시 : 몸으로 친해지기

8월 11일 - 5시~7시 : 파이팅! 여성주의 대 운동회

♀ 성매매 포럼

‘성매매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안하며

김주영 ■ 새움터 사무국장

1. 들어가며

작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어찌면 우리의 기억에서 그냥 쉽게 잊혀졌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여러 여성단체와 유가족의 끈질긴 노력으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 14일 새벽, 부산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의 한 여관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국가 권력의 묵인 아래 자행되어온 성매매 범죄와,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성매매 피해여성²⁾에 대한 인권 유린의 문제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었으며,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와 이중적 성별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그리고 이에 기반한 국가 권력이 숨어 있었다.

성매매 범죄의 근절과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모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긴 호흡의 투쟁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매매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이 제안이 단순히 문구 몇 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이 그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윤락', '매춘' 등의 용어에 대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성매매'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단어가 가치중립적이고 정확한 사전적 해석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성교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성(性)이 상품화되어 사고 팔리는 전체적인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성별에 관계없이 성매매의 과정에서 상품화되는 모든 여성과 남성은 피해자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이 글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표현하였다.

도대체 낙인. 병균자 낙인. → 타인의 가해를 받듯.
병균자 낙인을 받을 수 없음.

2. 성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³⁾

성매매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은 지난 1950년에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체결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1)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인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 자, (3) 성매매 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참여한 자, (4)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또한 이 협약의 제6조에서는 성매매 종사자 또는 종사 용의자들이 특별 등록, 특별 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지난 1979년 UN 총회에서 제정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포함된 성매매에 관한 조항이다. 이 협약의 제6조에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약 160여개의 비준국에서는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두 협약에 각각 1962년, 1984년에 가입하였으며, 모든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은 아니지만, 성매매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1995년에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 선언문과 행동강령"에 명시된 성매매 관련 조항이다. 즉,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의 문제점

1)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처벌규정

현행 윤방법은 성매매 피해여성⁴⁾과 성 구매자⁵⁾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⁶⁾ 이

3) "매매춘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신혜수

4) 현행 윤방법에서는 '윤락행위자' 또는 '요보호자'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윤락(淪落)'의 의미는 '윤리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매매'라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또한, '요보호자'에 대한 규정 역시 법 집행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조항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여성이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되면서, 그 여성이 성매매의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인신매매, 감금, 착취, 폭행 등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매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의 제한, 성폭행 및 가출의 경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획일적인 학교 교육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성산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나, 오히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도 소외당함으로써 성매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2)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규정

운방법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선도시설에 대한 조항⁷⁾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이익을 받거나 = 여성이 흥취를 추구
2.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 운방법에서는 남성고객을 '윤락행위의 상대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매매 행위의 두 주체를 타인의 성을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남성고객은 '성 구매자', 포주는 '성 판매자', 장소 제공자 등은 '중간 매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6) 제26조(벌칙) 3. ③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7) 제8조(보호처분)

-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년법 중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제33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조(선도보호조치)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요보호자 중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2.8>
- ② 제1항의 경우 요보호자가 20세 미만의 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퇴소를 요청할 때까지 본인의 동의로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선도보호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의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제10조(선도보호의 내용)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1. 상담 및 치료
2.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형상을 위한 교육
3.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사회구조적 문제" - 여성·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제정하겠다.

노동법 특별법도 함께 - 태민이 생을 시작하는 때에.

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여성으로 상징하고, 그에 따른 격리 조치로서의 의미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성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교육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적 지원 조항들은 피해여성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여성 관련 부서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운방법에 의거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선도보호시설이 전무한 점도 이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성 구매자 및 판매자,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처벌규정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고 확대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性)이 거래되는 성산업 역시 그 수요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근절을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발상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는 성폭력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야 하며, 실제로 성매매를 통하여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를 세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운방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과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 뿐만 아니라, 포주와 같은 성 판매자나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처벌조항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나 성 구매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조항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유흥주점, 전화방, 안마시술소 등의 합법적인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성적 서비

4.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5. 기타 선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8) 제24조(벌칙)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3. 업무·고용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제3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③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한국의 여성에게 있어 : '성매매'는 선택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여성들 4천여 명이 위해
관심 필요하다'는 해명

스의 제공과 성매매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다수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경찰의 묵인하에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인식 부족과 법률적 한계 등으로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4) 성매매 행위로 인한 채권 무효규정

성매매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무효로 규정⁹⁾되어 있으나, 실제 법률 집행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그 채권이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여성 스스로 자신이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 또한, 일선 경찰에서 오히려 여성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포주에게 빚을 지고 도망친 여성들을 전국에 수배하는 등 법 집행자의 인식 부족과 포주와의 유착 관계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대안

1)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

≡ victim

성매매의 주체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아니라, 포주와 같은 성 판매자와 중간 매개자, 그리고 성 구매자이다. 성매매의 과정에서 누가 실제로 이득을 얻고 있으며, 누구의 요구와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해진다. 성매매의 주체들은 여성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모품으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원하는 성 구매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¹⁰⁾ 그러나, 현재의 운방법에서는 피해여성을 성매매 행위의 주체로, 성 구매자를 그 상대방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 범죄의 책임과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성매매의 과정에서 수많은 착취와 범죄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법률안을 통해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부장제와 같은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성매매가 유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탈인격화, 상품화되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은 새로운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9) 제20조(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무효)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운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10) "Factbook on Global Sexual Exploitation",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생각할지 but. 정책 논쟁. - 법.자. 앞선자 과반 시. (90% 이상 규제가능)
시각 아이라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가야한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

2)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복지적 지원책 마련

현재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다. '원조교제'라고 불리던 청소년 성매매에서 속칭 미아리 택사스, 청량리 588 등의 전통형 성매매, 티켓 다방, 기지촌의 미군 전용 클럽,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의 산업형 성매매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퍼져있는 성산업의 굴레에서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강제적인 시설 수용과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술 교육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부 정책 역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여성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시설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며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 범죄, 채무 등 성매매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피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운방법 제6조¹¹⁾에 비밀보장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기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¹²⁾, 제22조¹³⁾,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

11) 제6조 (비밀보장) :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중 알게 된 운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종교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 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제22조 (신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3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

를 제18조¹⁴⁾ 등 규정된 것에 준하는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조직의 관료성,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운방법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관련 민간단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경험과 자율성,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와 재정 지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성 판매자, 중간 매개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위에서 언급한 국제 협약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여성 인권의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운방법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경찰, 공무원, 검사 등 법 집행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간 매개자나 성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형량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의 경우, 성매매 피해여성의 성매매 행위 혹은 그 수입의 일부 혹은 전부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성매매가 행해지는 장소의 관리자, 운영자 혹은 동거인으로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차용, 가불하거나 요금을 물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중간 매개행위의 대가를 받는 자는 중범죄(Felony)로 처벌하며, 연방 교도소에서 각각 3, 4, 6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성매매에 연관된 자는 각각 3, 6, 8년의 연방 교도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법률은 1976년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항목이 '2, 3, 4년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으며, 1981년에는 '14세 미만 여성의 성매매에 연관된 자는 3, 6, 8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

와 그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4) 제18조 (비밀누설금지)

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비범죄화"

리고, 1982년에 '2, 3, 4년 징역형'이 '3, 4, 6년 징역형'으로 강화되었으며, '14세 미만'이 '16세 미만'으로 개정되었다¹⁵⁾.

폴란드의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타인의 성매매 행위로 돈을 받거나 물질적 이익을 얻는 경우,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에 관여한 사람은 최저 3년형에 처해진다. 또한, 타인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은 1~10년형을 선고받는다. 타인의 성매매 행위로 물질적 이익을 취하거나 성매매 행위를 가능케 하는 사람도 1~10년형을 선고받는다.¹⁶⁾

최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적 서비스의 구매를 불법화한 스웨덴의 경우는 성매매를 주요한 사회 문제로 정의하는 금지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확장하여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도의 한 예로 볼 수 있다.¹⁷⁾ 성매매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법적 태도를 보이는 네덜란드에서도 미성년자와 외국인 여성의 자국내 성산업 유입과 성매매 행위의 강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¹⁸⁾ 그 외에도 프랑스, 중국,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성 판매자 및 중간 매개자, 인신매매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법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여성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성매매를 감소시키는데 이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성매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관련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실제 집행자인 경찰, 공무원과 중간 매개자 사이의 유착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성 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집행 또는 강제적 교육 프로그램 실시

1999년 1월 이후,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남성이 성매매 행위를 찾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⁹⁾,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 지역을 찾는 남성에게는 강제적으로 심리 치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등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찾다가

15) "West's Annotated California Code", §266h. Pimping: punishment, 1998

16) Polish Penal Code Article 174 1, 174 2, "The Women's Right's Center Report: Violence against women: Prostitution"

17) "European Prostitution Policy: a time of change?" Judith Kilvington, Sophie Day, Helen Ward

18) "199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25, 2000

19) "Sweden : Activity report 1998-2000", Elisabeth pettersson

적발된 남성을 대상으로 4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강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성매매 피해여성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성산업이 지역 사회와 여성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한다. 징역형의 처벌 대신에 벌금과 일정 기간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수료한 남성 중에서 다시 성매매 업소를 찾은 비율이 2%(1986년에서 1992년 사이에 교육을 받은 2045명 가운데 단 44명만이 재범자가 되었다.)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²⁰⁾ 또한, 남성들이 지불한 벌금으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남성을 적대시하거나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벌/교육 정책과 더불어 성매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일반 시민—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하여—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시키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 적용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국내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 성매매 알선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을 실시하고, 일시보호, 상담, 귀환 프로그램 등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관련자 처벌은 실시되고 있으나,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없이 이렇게 강제 송환되는 경우에는, 자국내의 성산업에 종사하거나 다시 국제 성매매 조직에 의해서 다른 외국의 성산업으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산업으로의 재유입까지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몇 년전 일본(유입국)과 태국(송출국)의 민간단체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귀환 프로그램은, 단순히 여성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송출국과 유입국의 연계를 통해서 귀환과 재유입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상담, 홍보, 기술교육, 일자리제공, 공조수사 등)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이 성 판매자와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연예인 신분(엔터테이너 비자)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적 서비스와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 성 판매자와 중간 매개자를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현재 새울터에서는 여성학, 사회복지학, 법학 연구자 1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특별법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한국의 성매매 현실과 특별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 조항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법률의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에 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기존 상담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법률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중순 성매매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취지, 방향 등에 대한 여성단체의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그 심각성과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성매매 특별법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부, 법무부, 한국여성개발원 등에서도 나름대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성매매에 대한 조사 연구와 현장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으로 인해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산 화재사건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실질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부 장관도 공창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일부 여성단체나 김강자 총경 등이 오히려 공창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는 공창제나 일정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성매매를 묵인하는 규제주의가 일단 시행이 되면, 오히려 성매매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다시 금지주의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한국 사회의 성매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성매매를 줄여나감으로써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올바른 법률 집행을 강제하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20) "Prostitution Law Reform in Canada", John Lowman, School of Criminology, Simon Fraser University

성매매알선행위등방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토론

김현선 ■ 새움터 대표

서론

한국여성개발원으로부터 법률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탈매춘한 여성 30명에게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 많은 여성들에게 조사가 가능했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조사대상을 30명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30명의 의견을 모든 매춘여성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의견은 매춘여성들의 의견과 성매매방지를 위한 올바른 해결방향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움터의 견해도 함께 정리하였다.

1. 성매매알선행위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1) 조사결과

<표 1> 탈매춘한 여성 30명의 의견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성매매알선행위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중형으로 처벌하고,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한다.	28명(93.3%)	0명	2명(6.7%)

<표 2> 탈매춘한 여성 30명의 더 자세한 의견

찬성	· 우리들도 인간이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 · 감금하고 때리고 강간하고 매춘을 강요하는 포주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우리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 바지사장들만 잡아들이지 말고 진짜 포주들을 처벌해야 한다.
반대	· 진짜 포주들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경찰은 이들을 잡아들이지 않는다. 법이 바뀌어도 진짜 포주들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2) 평가

위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와 여성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선행위자나 포주, 폭력매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필수적이다.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조사연구가 입증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14세이고²¹⁾, 적어도 75%의 매춘여성들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들이며²²⁾, 90%이상의 매춘여성들이 포주의 통제 하에 있고²³⁾, 70%의 매춘여성들이 손님이나 포주, 다른 남자들에 의해 강간을 당해왔고²⁴⁾, 매춘여성들은 매주 한 번 꼴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²⁵⁾ 캐나다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매춘여성들의 사망률은 무려 40배 이상이다.²⁶⁾

한국에서도 성매매된 여성에 대한 이러한 폭력의 양상은 동일하다. 새움터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성매매된 여성들이 폭력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실제로 1999년 경기도 기지촌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움터의 조사에서는 성매매 되어있는 동안 20~29세의 여성중 46.8%, 30~39세의 여성 중 72.4%, 40~49세의 여성 중 78.9%, 50세 이상 여성 중 89.5%가 절도, 강도, 성폭행, 구타, 감금 등의 폭력을 직접 당했다고 응답하였다.²⁷⁾

반대의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법률제정만큼 법률의 집행력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조차 성매매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관련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관련공무원들의 유착비리나 인식부족 때문에 법률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침해도 개선될 수 없었다.

3) 제안

- 관련공무원들의 유착비리에 대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유착에 의한 불법수익에 대하여 몰수·추징하는 것에 대한 조항 신설(금지행위 및 벌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공무원들에게 유착비리방지과 성매매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서 배포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첨가(국가등의 책임)
- 성매매알선행위등을 한 사람에게서 몰수하거나 추징한 재산은 성매매된 사람들의 재화를 위하여 사용한다.(벌칙)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다방, 카페, 컴퓨터게임장, 종합게임장,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 증기탕,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무도학원, 무도장, 전화방 등의 업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한다.(벌칙)
 - 성매매행위 알선
 - 종사자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이나 노출과 같은 성적 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

21) M.Silbert and A.M.Pines, Occupational Hazards of Street Prostitution, & Crimes, Just, Behav, 195(1981)

22) WHISPER Oral History Project, 1987

23) S.B. Satterfield, Clinical Aspects of Juvenile Prostitution, 15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9: 126, (1981)

24) D. Leidholdt, Prostitution: A Violation of Women's Human Rights, 136, (1991)

25) Hunter, S.K. Letter(1994), Patriarchy: notes of an expert witness, Common Courage Press.

26) Baldwin, M.A.(1992), Split at the root: prostitution and feminist discourses of law reform,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27) 새움터(1999), 경기도내 기지촌 지역 매춘여성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새움터.

- 성매매행위 묵인
- 관련공무원 조치 방해 및 기피
- 성매매범죄에 관한 내부고발자는 처벌을 면제한다.(벌칙)

2. 성매매된 여성 처벌

1) 조사결과

<표 3> 탈매춘한 여성 30명의 의견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둔다.	0	30(100%)	0

<표 4> 탈매춘한 여성 30명의 더 자세한 의견

찬성	· 성을 파는 게 우리들인가? 성을 팔고 우리들을 파는 것은 포주들이다. · 남자들이 필요해서 우리들을 이용하면서 왜 우리들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우리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탈매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
----	--

2) 평가

위의 한 여성의 이야기처럼 성을 파는 주체는 성매매된 여성들이 아니라 여성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강요하는 포주들이다. 따라서 성매매된 여성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성을 파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매매된 여성들은 대부분 포주와 성을 사는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조항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처벌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98년에 제정되고 1999년 매매춘금지를 포함시킨 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이다.

스웨덴은 남녀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진 국가로 간주된다. 정부의 대표는 50%, 의회의원은 40%, 주의회의원은 48%, 지자체는 41%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의 70%가 취업상태이므로 여성의 정치력과 자립도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남아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이다.

즉 스웨덴은 성매매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의 내용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표로 제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매춘·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한다."²⁸⁾

스웨덴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어떠한 형태의 매매춘이든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최고 6개월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남성과 성매매를 조장하고 알선하는 포주들에게만 해당된다. 성매매된 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사회복지적 관심의 대상이며, 피해자로서 인식된다. 이것은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의 과정에서 착취당하고 있으며, 약자이기 때문이다.

3) 제안

- 포주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된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성을 파는 행위자"를 포주와 중간알선자 등에 초점을 맞춘다.(정의)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매매된 여성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벌칙)
 -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살해위협
 - 채무관계
 - 성매매된 다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살해위협으로 협박을 당했을 때
 -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거나 가족에게 성매매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했을 때

3.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처벌

1) 조사결과

<표 5> 탈매춘한 여성 30명의 의견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삶은 처벌하되, 선고·집행유예시 성관련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등 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19명(63.3%)	9명(30%)	2명(6.7%)

28)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표 6> 탈매춘한 여성 30명의 더 자세한 의견

찬성	· 경찰단속에 함께 걸려도 손님들은 그냥 돌려보내고 여성들만 처벌해 왔다. 손님들도 처벌해야 한다. · 여자들을 사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매춘여성들도 생기는 것이다. 이런 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 여자를 돈을 주고 사다가 걸린 남자에게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 여자를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여자들이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들은 포주에게 돈을 주고 여자들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남자들만 처벌해야 한다. · 여자가 거부하는데도 포주에게 돈을 주었다며 성행위를 강요하는 손님들은 강간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손님들이 여자를 폭행했을 때에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반대	· 열 여자 싫다고 하는 남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들이 이런 일을 거부하면 다른 여자들이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 돈을 받았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하고 좋아서 하는 성행위는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평가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된 여성들은 성을 사는 남성에 의해서 강간이나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성매매된 여성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하면서도 성매매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가 사회의 필요악이라든지 성매매된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잘못된 인식들은 성매매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된 여성들에게 무력감이나 죄책감을 심어주어 탈매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탈매춘의 과정에서 성매매된 여성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여성주의적 집단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높다.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성교육프로그램인 John's School은 재범율이 2%라고 보고되고 있다.

John's School은 샌프란시스코 성매매 범죄자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것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다 단속에 걸린 남성들이 또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성매매된 여성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남성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을 사려고 하다가 잡힌 남성들은 법정에 갈 것인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매매의 남성고객들이 여성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해를 이해하지 못한다

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John's School에서 무보수로 혹은 저임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전에 성매매되었던 사람들이거나, 보건관련 공무원, 혹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돈을 주고 사는 섹스 슬라브에 의해 일어나는 위험과 손해에 대해 교육한다. John's School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400달러의 세금을 내는데 이 돈은 보통 성매매된 여성이나 상담 집단을 위해 사용된다.

3) 제안

- 성을 사는 행위자가 성매매된 자에게 강간이나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벌칙)
-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게 명령된 관련교육은 성매매에 의해 피해를 받은 성매매된 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에 의해 구성되며, 수강료(벌금)는 성매매된 피해자들의 재화를 위하여 사용한다.(보호처분)
- 상습적으로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한다.(벌칙)

4.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한 중장기보호시설 위탁처분

1) 조사결과

<표 7> 탈매춘한 여성 30명의 의견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장기보호시설로의 위탁처분 규정을 두어 처벌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위탁처분을 받도록 한다.	2명(6.7%)	26명(86.7%)	2명(6.7%)

<표 8> 탈매춘한 여성 30명의 더 자세한 의견

찬성	· 미성년자에 대한 시설보호만 찬성한다. · 의사와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갖춰지고, 전문적인 심리·정신치료 및 알콜과 마약치료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기술교육, 실질적인 취업알선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찬성한다.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감시할 수 없다면 반대한다.
----	---

반대	· 시설은 감옥과 마찬가지로이다. 기술원보다는 차라리 감옥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가 없고 다른 여성들의 폭행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 지금은 70년대 80년대가 아니다. 우리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들을 가두어 두고 강제로 교육을 시킨다면 경기도여자기술원방화사건과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 우리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에 살고 교육기관이나 상담소를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 · 우리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성인인데 시설에 가두어놓고 교육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 정부가 시설들을 만들어놓아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	---

2) 평가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중장기보호시설에서의 보호처분을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보호처분만 찬성한다든지, 전문적인 시설개선이 있는 경우에만 찬성하고 있다. 성매매된 여성들의 대부분이 포주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을 격리수용하여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강제수용은 한 여성의 이야기처럼 제2의 기술원참사와 같은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경기도기술원방화사건 이전까지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단속을 통한 '시설수용보호' 대책을 시행해 왔다.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한 그간의 대규모 시설수용의 문제점은 시설보호의 비인도성과 강제성, 시설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자활의 기본 요소인 일상적인 생활 유지의 불가능 등이었다. 경기도내의 매춘여성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시설수용은 1995년도 "경기여자기술원 방화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모두 37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 사건은 기술원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항의하는 여성들이 숙소에 불을 지르자, 원생들의 탈출을 우려해 기술원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발생하였다. 그 당시 이 기술원은 정부로부터 매년 11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원생들에게 생활필수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철책과 초소를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감시하였다. 마치 교도소처럼 원생들은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일상적인 체벌이 벌어지고 있었다.

성매매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주에 의해 억압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성매매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풍행이나 의식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여겨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매매된 여성들은 성매매의 피해자들이다. 피해당사자들에게 다른 법률(가정폭력특별법)에서는 가해자에게나 적용되고 있는 보호처분을 명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매매된 여성들을 시설에 수용하여 재활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자유로운 탈매춘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의 말모프로젝트와 새옴터의 탈매춘종합지원프로그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다.

① 말모프로젝트

말모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성매매밀집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1977년까지 진행된 말모프로젝트를 통해 72.5%의 여성들이 매춘을 그만두었고, 그만두지 못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마약에 의존하고 있었던 여성들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안이 제공된다면 성매매된 여성들은 매춘을 그만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경제적 보조, 주택지원, 직업에 대한 지원, 의료적 지원과 상담, 포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원과 보호 등과 같은 탈매춘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즉, 말모프로젝트는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전략으로서 성매매된 여성들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성매매를 반대하는 대중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② 새옴터의 탈매춘종합지원사업

새옴터의 사업은 매춘여성의 탈매춘과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매춘업소가 집결되어 있는 지역의 매춘여성에 대한 Out-reach서비스이다.

새옴터는 매매춘집결지에 상담소를 열고 업소를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상담한다. 매춘여성들은 대부분 반감금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매춘여성들이 새옴터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여성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들이 매매춘으로 유입되는 주요원인은 빈곤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매매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매매춘으로 유입된 여성들에게 탈매춘을 유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적 대안마련이다. 새옴터는 공동작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탈매춘한 여성들에게 신속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술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매춘여성을 폭력과 빛의굴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매매춘폭력조직이나 포주의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매춘여성들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새옴터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연계하거나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해 줌으로써 여성들을 보호한다.

넷째, 여성가장들의 탈매춘과 직업재활사업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실직여성가장들 중에는 자녀보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매춘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아동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사업을 제공함으로써 매매춘 유입을 예방하고 이미 유입된 여성들의 탈매춘을 지원한다.

다섯째,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매매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의 제정활동, 매매춘의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폭로하는 활동, 예방교육, 인권보호활동 등을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제안

-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한 보호처분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이나 상담소에 대하여 여성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보호처분)
- 성매매된 여성들의 사회복귀에서는 직업적 대안을 제공하는 사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직업기술 교육 및 적응훈련, 취업알선, 일자리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한다.(시설의 종류)
- 경찰은 성매매된 여성들을 조사할 때 시설이나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사법경찰의 응급조치)
- 경찰이나, 법원, 검사에 의해 성매매된 여성들을 조사할 때 여성들의 신청에 의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이 동석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신뢰관계에 있는 자들의 동석)
-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관련공무원들도 성매매의 피해자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인적사항·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비밀보장)
- 성매매된 여성이나 내부고발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심리나 증인신문에서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심리의 비공개)
- 여성복지상담소는 현장지원서비스(Out-reach서비스)를 기본적인 사업내용을 하며, 현장지원 시 경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 표 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는 여성복지상담소는 총 138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인 상담원들은 일반행정직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상담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는 성매매된 여성들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상담소의 민간으로의 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표 9> 여성복지상담소 및 상담원 현황('99. 6. 30 현재) /자료: 보건복지부 2001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구분	여성복지상담소		간이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 상담원
	개소수	상담원(현원)	개 소 수	상담원(현원)	
여성복지상담소	89	205	49	52	361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새옹터(1999), 경기도내 기지촌 지역 매춘여성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새옹터.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 이행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Baldwin, M.A.(1992), Split at the root: prostitution and feminist discourses of law reform,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Hunter, S.K. Letter(1994), Patriarchy: notes of an expert witness, Common Courage Press.
 Silbert & Pines,(1981), Sexual child abuse as an antecedent to prostitution, Child Abuse and Neglect.

♀ 성매매 기초 표양

당신과 나는 성매매를 얘기해 보자.
지금, 이 곳에서.

■ 관악여모 기지촌활동 교양준비팀

1. 성매매의 실태 : 매춘 여성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종사/이탈 과정에서의 강제력

'성매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해 있었던 중앙경찰서 김강자 서장의 '미아리 텍사스 미성년 성매매 소탕'을 기억하리라고 생각한다. 당시 김강자 서장은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어가며 미아리 텍사스에서 미성년 성매매를 소탕하는데 주력하였고, 국내 각계 각층의 전폭적 지지와 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와 관심은 어디까지나 '미성년' 성매매에 국한되어졌고, 성매매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강자 서장의 활동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성매매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급적 성에 대해 눈뜨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는 많은 이들이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환경할만한 무언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혹은 '성매매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고민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매매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미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성매매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성매매는 필요악이든 철대악이든 뭐든 하나의 '악'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왜 '악'으로 규정되면서도 계속 존속하며 오히려 점점 거대해 지는 것인지, 그리고 성매매를 '악'이라고 할 때, 진정 무엇이 나쁜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1.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1) 성병 및 에이즈 등의 노출 : 직접적 폭력의 형태

거의 모든 매춘 여성은 성병, 에이즈 등으로부터 자신의 보호막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

(남자들이 콘돔 사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여성-나> : (질색을 하면서) 아-휴, 난리지. 내가 콘돔을 집어 주면 아주 편히 쳐다봐요.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는 거지. 너 병 있냐 그러구 어찌면서 기분 나쁘하니까. 아가씨들이 아예 잘 권하지를 않는 거지. 따귀 맞는 일 정도는 비밀비재해 맞을 각오를 하고 주지. 난 그래도 할 말은 다 해부었어. 콘돔 같은 걸 좀 많이 권하는 편이었지.

성매매 지역을 찾는 남성들이 대부분이 동료들과 술이 취해 오는 상황에서 콘돔의 사용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여성의 몸을 통해 성욕을 해결하려는 남성들은 전적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 원한다. 출산에 대한 염려나 성행위에 대한 비난이 없는 공간을 필요로 돈을 주고 산 남성에게, 매춘여성은 단순히 제한된 '성기'를 부분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맡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춘여성들은 성병이나 에이즈에 무방비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이즈감염자> : 미아리 같은 경우는 (에이즈노출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일본인, 외국인이 또 많지요. 각종 쇼를 이벤트로 하기 때문에 콘돔이란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하는 섹스 자체가 좀 달라요. 특히, 오랄섹스를 위주로 하지요. 입이란 아주 약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거죠.

(2) 손님으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차배달을 나가서 폭력을 당하는 일은 없어?)

<여성-가> : 왜, 많지. 배달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경우 많아. 특히, 여관에든 차 배달을 하거든. 그런 여관에 투숙하는 놈들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나 여관에서 숙식하는 양아치들이지. 그런 놈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야.

물리적 힘이 약한 매춘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구조 속에 무기력하게 놓여있다는 현실은 매춘여성은 보호될 필요가 없다는 통념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매춘여성의 성은 우리사회에서 보호되지 않아도 될 부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매춘여성-가> : 강남 뽕싸롱 다니는 내 친구가 제작년인가에 도둑(강간)을 당했어. 경찰들이 돌아와서 조사를 하면서 직업이 뭐고... 하는 게 다 나오게 되었지. 그런 여자들을

전문적으로 터는 놈들이 있거든. 개들이 원래 문단속이 허술해요 그런데 그 경찰 놈들이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도) 어떤 포즈로 어떻게 손을 집어 넣었나... 어쨌든 하면서 세세하게 물어 보는 거야. 한 자도 적지 않고 그냥 앉아서 쳐다보면서 말이야. 내가 하도 기가 막혀 그만하라며 따졌더니, "한번 당하나 여러번 당하나 마찬가지로 일텐데, 뭐 그런 걸 신고까지 하느냐"는 거야.

(3) 성산업구조 속에 행해지는 극단적인 폭력 형태 : 인신매매 및 감금

[인권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씨의 하루/ '철창 갇힌 나는 한마리 짐승' (한겨레 2000-09-29)
지난 19일 전북 군산 대명동 '취파리골목'에서 발생한 화재로 20대 성매매여성 5명이 숨진 사건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임씨 등 사망자 5명은 채 1평이 안되는 쪽방에서 철창에 갇힌 채 '짐승'같은 생활을 해왔다. ... 경찰은 또 "윤락녀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 감금하고 임향이 일하기 싫다고 98년 4월 5일 새벽 3시경 도망치다 잡히자 뺨을 때리며 '아 XXX아, 빚도 갚지 못하는 년이 왜 도망치느냐. 섬으로 팔아버린다'고 협박하고 감금했다"고 구속 이유서에 적고 있다. 그 뒤 1년 남짓 흐른 지난 19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임씨는 불길 속에서 아무 저항도 못한 채 여고 시절 개그우먼 꿈을 접었다. 화재참사 며칠 전 임씨는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 "도와주세요. 이젠 지쳐가고 있어요.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이젠 아닙니다."

2. 빚과 이자의 율가미

게다가 매춘여성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속에 있다. 성산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성산업 종사자가 아니라 성산업의 자본가들이다. 성산업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성산업을 위해 종사자를 확보해야 한다. 종사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타락'이란 함정을 파고 '빚과 이자'라는 율가미를 걸어 놓는다. 빚과 그에 따르는 이자는 그녀들을 더욱 깊고 음산한 문화에 자리 굳히도록 한다. 그리고 금기야는 빚의 노예로 섬이나 벽지 등으로 팔려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돈 좀 모았어요? 그곳에선 돈을 모을 수는 있는 거예요?)

<여성-나> : 돈을 모아? 몸뚱이 하나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행이겠어? 거긴 돈 못모아. 모을 수가 없어. 일단 그 집에 들어 가면 빚을 지게 되거든. 집나온 애들이 뭐가 있어. 빈 몸뚱이지. 방세, 가구, 옷, 다 빚이지. 매달 이자 물어야지. 빚에 묶여 있어. 완전히 매인 몸이니 주인이 매일 따라 다니는 거지. 그러니 누가 주인한테 따져 따지긴.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성-가> : 일단 집 나온 애들이 많으니깐 기본적으로 빚이 있는데서 시작을 한다구. 보통 "한 테이블당 4만원 정도는 되니깐 한달이면 120정도가 되겠지. 2차 가면 10만원에서 15만원 되니깐 한달이면 300-400벌이는 되겠구나. 아, 빚을 금방 다 갚겠구나"생각한다구. 그런데 1주일 정도면 아가씨들에게 거의 애인이 생겨. 그리고 손님들에게

돈 못 받는 경우도 많아. 2차 손님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구. 주인이 힘이 좀 있거나 건달 등 백이 없으면 돈 받아내기 어려워. 또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많구.

(몸싸움의 아가씨들의 경우는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네들도 돈 못 모아. 개들은 '빚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수를 찍거든. 일수 이자가 100일 쓰는데 100만원당 20만원이야. 일수 빌려 쓰니까 돈 메꾸기식이야. 이자만 계속 누는 거야.

(왜 자꾸 빚을 지는데? 뭐가 문제야?)

<여성-가> : 다방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채워야 하잖아. 그런데 그러기가 힘들어. 보통 2,3일은 쉬어. 그렇게 티켓 끊고 몇 번 쉬게 되고 옷 값에 미장원, 목욕탕비, 군것질 등 하다보면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어. 중간에 돈을 다 쓰게 되고 또 빚을 땀겨 쓰는 거지. 계속 빚만 늘어가는 거야. 게다가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둘 경우에는 다방주인에게서 받은 소개비를 우리에게 물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지. 빚을 많이 지면 대포집이나 벽촌으로 가게 되는 거지.

3. 성매매의 율

매춘여성들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성매매에 유입되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다 폭력에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왜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일까?

(1) 매춘여성의 착취구조

매춘여성의 착취구조는 매춘여성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을 포주 등이 갈취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곳에 매여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성산업의 자체 구조의 필요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매춘여성들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 속에 매몰되어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데도 왜 빠져 나올 수 없을까요?)

<여성-나> : 일단 그런 곳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첫째는 편하거든. 일단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깐. 막말로 부모님한테는 돈 달랄 수 없지만, 포주한테는 돈 달라면 두말 않고 주거든. "언니, 얼마만 해줘" 그럼 금새 구해 주니깐. 그게 다 빚이 되는 거고 이젠 빚에 묶이게 되는 거지. 그래도 당장은 그게 편한데... 그리고 또 거기에는 늙어서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어. 나이 먹으면 또 아가씨들한테 손님 끌어 주는 거 하니깐 (멤프요?) 그래 멤프같은거.

<여성-가> :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돈을 잘 땀겨 줘. 그래야 아가씨들을 묶어 놓을 수 있으니까...

(2) 자기 존중감의 상실

경제적 이유로 돈을 벌고자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의 경우에도 일단 성매매에 유입되면 대부분 쉽게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된다. 한 인간이 건전한 자기 권리와 건강한 삶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상황들에 의해 성매매는 유지될 수 있다.

<여성-가> : 사람 망가지는 거 참 쉬운 일이야. 2-3달이면 죽해. 한번은 25세 먹은 여자가 찾아왔어. 소아마비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그런데 의처증이 심해서 맨날 자기를 개 패듯 한다는 거야. 내 앞에서 참 많이도 울었다. 울면서 돈 벌어 애 찾아오겠다고 하도 때려서 집은 나왔지만 갈 데나 있었겠어? 애를 데리고 나올 수도 없었을 테지. 처음엔 일도 참 성실하게 했어. 그런데 2-3달 되니깐 그냥 망가지데. (왜?) 생활하다 보니 힘이 들었겠지. 돈도 생각보다 안 모아지고, 그렇다고 친정이나 집으로 들어 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게 매일 삶을 살았던 여자들은 더 쉽게 망가져. 길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남자가 많거든. 자기에게 잘 해 주는 남자. 그런데 그런 남자가 어디 있니? 다 그놈이 그놈이지. 착각들을 하고 있다니깐. 결혼했다든 경우엔 더 쉽게 넘어가. 꼬임에 쉽게 넘어 간다구. 그러면 또 좌절하게 되는 거지. 남자에게 상처 입고 술 먹고 울고불고 하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일 못하고 하루 일 못하면 15만원 까는 거지. 그렇게 며칠 안 나가면 금세 붙어나는 거지.

(왜 그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야?)

<여성-가> : 사람이 중독되는 게 무서워. 술, 담배, 마약 같은 거야. 끊을 수도 있지.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중독이 되면 못 헤어. 사람마다 환경에 중독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수밖에 없다"라고 갖가지 이유를 대지. 생활 자체가 중독이 되어 버리는 거라구. 처음엔 돈을 벌려고 하지. 그러나 거기선 구조적으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이번 달부터는 술 안마시고, 탕수도 안내고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열심히 빚 갚아야지" 한다구. 그렇지만 매일 매일 똑같이 사는 거야. 돈 못 모으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남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해. 난 이래서 다르고, 난 이래서 다르고...

매춘여성은 쉽게 습관성 약물이나 노름, 술, 담배, 마약 등을 접한다. 그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무력한 게으름에 빠지고 무절제한 낭비에 빠진다. 게다가 매춘공간을 둘러싸고 형성된 매춘여성 대상의 상품 시장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이들의 소비태도를 부추인다. 이러한 생활태도를 몇 년간 유지하다 보면 매춘여성은 일반여성과 다른 습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3) 포주와의 관계

실제 많은 매춘여성들이 매춘 생활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빚 때문'이란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법

적으로 매춘여성은 포주에게 진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매춘여성들이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의 부재나 처벌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포주나 중간매개자의 관계에서 의리나 정으로 인간적 관계를 형성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간적 관계는 매춘여성이 자신의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비가시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청량리에서 온 애는 나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며 나와요. "저 언니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같이 해줬는데." 얼마 전에 19살짜리 애를 미아리에서 꺼냈는데 그때도 울어요. 개도 "엄마"라고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개도 거기 나오면서 십원 한 장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언니가 나 고기 반찬 해 주고 뭐 해 줬다"고, 그러니깐 그 여성들은 돈 못 버는 것도('별 문제 아니에요'라는 말을 생략하는 듯이 고갯짓을 한다)

포주에 대한 믿을 아주 강해요. 개들이 포주가 정말 싫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갇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빠져 나올 구석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욕갔을때, 물론 마담과 식구들하고 다 같이 가기는 하지만, 마음먹으면 가능한 일이지요...

<여성-가> : 아무리 다른 곳보다 적게 돈을 받아도 의리라고 생각하니깐. 쉽게 옮기는게 어려워 옮겨도 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조금만 잘 해 줘도 쉽게 넘어 간다구.

II. 성매매에 대한 오해 풀기

1. 자발적 선택? : 진입 단계에서의 강제력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1년여간 일했다. 1년간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에 회의가 들었다. 힘든 데다 월급도 많지 않고, 진급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급을 해도 반장—판매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이 고작이고, 그것마저도 판매 코너에서 5년은 일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그 동안 단란주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두 달 있어보니 모르는 남자와 술 마시고 그런다는 게 싫었고, 회의도 들었다. 그래서 다시 대리점 판매원으로 취직했다. 그런데 대리점이 부도가 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한동안은 쉬면서,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깐 정말 돈 1-2만원이 없었다. 돈이 당장 급한데 돈을 벌만한 곳이 없어서 다시 단란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단란주점에서 돈을 벌면 중간에 잠깐씩 쉬기도 했다. 다른 직장을 구해보려고도 했지만 자리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사무직원으로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²⁹⁾

흔히 성매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진입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지적한다. 사실 앞에서 든 예처럼, 생계 수단을 위해 향락업소에

29) CAMP 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0

2. 성매매는 계약의 일종이다?

성매매는 분명 계약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계약론자들이 성매매의 계약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점이 없는 계약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 모든 것의 상품화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성(性)이라고 하여 특별히 그것이 상품화 경향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개인들처럼 매춘여성도 그녀의 성(性)—신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녀의 신체상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는 그녀의 소비자와 그녀 둘 다의 자유를 위하여 옹호된다; 모든 이들은 성을 사고 팔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가 '계약'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계약인가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성매매 계약이 계약론자들이 말하는 의미의 계약—합리적이고 동등하고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이 상호 동의를 통해 평등하고 호혜적인 거래를 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어떤 '동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가? 얼마 전 서울지법에 제소되었던, 남성들이 잘못이 없는 소녀를 재워주고 섹스를 하고는 차비나 하라고 돈을 집어준 사례에서 판사는 남녀 상호간의 정에 의해 섹스를 한 것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예정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라거나 '동의'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의 한계가 드러난다. 잘 데가 없던 소녀가 '자발적으로' 섹스에 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매매계약이 합리적이고 평등한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도로 팔려간 수백 명의 내팔소녀들은 처음 2, 3년 동안에는 바깥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들은 아무런 가시적인 구속장치 없이 가게 문 밖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한 시간 정도 외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성매매를 동의하의 행위로 정의할 때의 '동의'의 속성은 무엇인가? 여성들에게, (노동자로서건 혹은 식민지인이건) 종속과 착취의 일부로서의 역사적 상황을 지닌 이들에게 이것은 명백히 잔혹하고 수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모든 성매매의 현장에서는 이 사례에서와 같은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진 '계약'이 맺어진다. 그러나 그 계약은 자신을 파는 계약이다; "계약의 대상물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L.Kant)."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인간 소외와 자아 손상, 굴욕감을 동반한다면 성매매가 특별히 더 억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물론 성매매는 (여성이 행하는) 여타의 노동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teman은 성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고용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계약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성매매 계약은 남성 소비자와 맺는 계약이지 고용주와 맺는 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핵심은 여성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사용이다. 보통 자본가는 고용기간동안 노동자의 특정한 노동형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가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품과 그로 인한 이윤이지 노동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종종 기계로 노동자를 대체하기도 한다. 반면에 남성 소비자는 매춘 여성과 그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는 그녀의 생기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불고 있는 러시아여성(일명 백마) 열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는 '남성'인 자신에 대하여 열등한 '여성'이라는 존재를 자기가 산 시간 동안 완벽하게 복종시키기를 원하며, 심지어 그녀의 반응까지 요구한다. 성매매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가장된 동의와 감정이다; "여성을 비인간화하는 성적 행위에서의 여성의 반응은 가부장적 구성체로서의 정상적 성의 증거물이다(K. Barry)".

결론을 내리자면 자유주의적 논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나 여성이 놓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 없이 봉 떠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다. 계약론은 왜 성매매업의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인가라는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계약론자들에 의해 그저 우연으로 치부되어왔던 사항이다. 또한 여성은 소비자 남성과 직접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향락산업의 구조 속에서 계약을 맺는데, 계약론적 관점은 이러한 구조의 존재를 간과하게 만든다. 향락산업의 핵심인 성 산업은 여성이 '공급'됨으로써 창출되는 영역이 아니라, 여성의 공급을 창출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III. 성매매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1. 성적존재로서의 여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재현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여성들이 매체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을 바로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어머니/혹은 어머니가 아닌 존재로서 재현된다. 즉, 여성은 성적인 존재 혹은 무성적인 존재로서 재현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으로서 재현된다. 게다가 그 재현 역시 '성적인 존재'라는 의미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여성의 재현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성의 존재, 여성의 몸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인가?³⁴⁾

사회적으로 여성의 몸이 성적 대상으로서,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재현되었다는 것,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 성 사회화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해왔다는 것은 여성들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34) 덧붙여 이러한 사례에 대한 하나의 재미있는 예로서, 많은 이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을 '브래지어 태우기'라는 상징으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기실 미국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시위 했을 때, 그들 중 실제로 브래지어를 태운 여성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수잔 보르도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아마도 이 시위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 사건을 섹시이셔널한 대 사건으로 보도하고자 했던 당시의 방송 매체가 이 사건을 <브래지어 태우기>로 잘못 보도했거나, <브래지어 태우기>라는 이름을 조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로 오늘날 나의 제자들 중 많은 학생들도 여전히 페미니스트들을 <브래지어를 태워 버린 자>로 일컫는다. 하지만 브래지어가 사실상 불태워졌던 아니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곧 여성들이 그 동안 —모성애의 상징으로건, 주원집 아기에게 젖을 주는 유모의 이미지로건, 혹은 애로적인 몸소로건— 문화적으로 그토록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도록 요구되어 왔던 자신들의 젖가슴을 '혼유되어지는' 대상으로서 간주되는 것을 거절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대중들이 인식했다는 점이다." (수잔 보르도, <페미니즘/푸코/신체의 정치학>, <<푸코와 페미니즘>>, 동문선.)

2. 성매매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이 사회에서 여성은 인간인가?”

지금까지 성매매 운동/논의는 극단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의 실태를 알려내고, 성매매를 둘러싼 직접적인 사회억압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은폐되어 왔던 성매매의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드러내기’ 과정 이후, 페미니즘이 피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된 성매매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 또한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우선 이 글에서 필자는 ‘성매매와 여성의 물질화’에 대해 배리의 분석을 토대로 글을 전개하려 한다. 1장에서는 성매매에 있어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물질화와 여성의 여성 자신에 대한 물질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물질화 과정 체험의 공통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2장에서는 1장에서의 논의 과정 속에서 몸과 자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그 논의를 이어나가 3장에서는 여성의 물질화가 여성의 자아/섹슈얼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1) 성매매와 여성의 물질화

성매매에서 여성의 물질화 과정은 분명 성매매 여성이 어떠한 존재로 인지되는가, 그리고 여성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성의 성 인식에 대한 사례³⁵⁾와 매춘 여성의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남성들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모든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일종의 게임이랄까. 마치 전자 오락실에 들어가서 게임 한판하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 오르가즘? 그런 거 몰라. 별거 요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천장만 봐. 빨리 싸고 끝내라고 하는 거지. 하루에도 몇 건인데... 피곤하지. 그럼 그냥 천장만 보고 있어.
- 콘돔? 쓰라고 하지. 쓰라고 했다가 맞기도 많이 맞아. 그치만 일단은 쓰라고 해보는 거야.

앞서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물질화는 남성이 매춘 여성을 인지하는 과정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자신을 인지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1.1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물질화

성매매에 있어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물질화는 단지 인지/인식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동반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죄책감 없음’으로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35) 자세한 것은 <보론: 남성의 성인식>을 참조하기 바란다.

구타, 강간, 살인은 매춘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적 위험” 정도로 인식된다.³⁶⁾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물질화는 비단 성매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늦은 밤, 거리에 있다면 여성들은 단지 그녀가 여자라는 것, 그리고 길 위에 서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춘제안을 받는다. 이것은 여성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로 비추어지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또한 여성이 성적인 주체가 아닌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성적 객체/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여성 자신에 의한 여성의 물질화

남성에 의해 물질화된 여성이 자신을 또 다시 물질화하는 과정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물질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는 ‘자기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성매매 여성의 예에서 보여지듯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물질화는 ‘dissociation’과 ‘body limit’, ‘accordance’ 등으로 나타난다.

‘dissociation’은 몸을 자아와 분리시켜 몸에 대한 자기 통제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에 자신의 몸을 거부하고, 몸에 남아 있는 기억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지워버림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body limit’는 성매매 여성이 “고객을 상대하며 제한과 여러 금기들을 만드는 노력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제한은 비록 거짓된 지배일지라도 최소한의 개인의 자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그 제한이 철회될 때 자아는 포기된다.” 매춘여성이 강간을 당했을 때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앞의 예에서처럼 성매매시에 콘돔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 등에서 이러한 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통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accordance’는 여성 스스로가 남성지배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행위와 성적규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다시 한 번 자신을 남성의 입장에서 물질화시킨다. 즉, 여성은 남성의 시각/행위에 의해 구성된 성매매화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한계적인 틀 안에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물질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몸과 자아와의 관계

몸은 인간의 내부와 외부, 자아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고리이며 권력이 작동하는 물질적인 공간이다. 몸을 통해 바깥 세상과 연결됨으로써, 개개의 인간들은 스스로를 타자와 분리되고 구별되는 인간 존재로써 자각하게 된다. 즉, 몸은 인간의 경험을 담는 동시에 세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성취되고 유지된 인간성 그 자체를 초월하는 기제인 것이다. 따라서 몸은 자아와 분리된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

36) CPA는 1990~1991년 매춘을 떠나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179명의 여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생존자의 78%가 강간의 희생자라고 밝혔다. 대략 48%는 필드에 의해 연간 평균적으로 16번의 강간을 당했으며 79%는 손님에 의해 1년에 평균 33번의 강간을 당했다. 이와 유사하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춘하는 200명의 여성에 관한 연구는 피연구자의 73%가 매춘을 하면서도 강간당했음을 보여준다. 강간에서의 성은 남성의 맥락에서 본 것이다. 매춘에서 남성이 사는 성은 비인간화된 육체로서의 여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강간에서의 성과 다르지 않다. 남성은 그들이 성에 대해 최대를 지불할지, 강제 혹은 동의로 취득할지를 결정한다.

한 인간의 경험에서 성적 상호 작용이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이었다면, 여기에는 자아에 대한 폭력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그 자아는 그것이 구성된 사회의 상호작용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프랑스 심리학자인 Suzanne Kepes는 성매매의 폭력성이라는 맥락에서 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녀는 '인간'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반영하고, 몸을 가지고 세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Kepe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체 위에서 발생한 폭력과 억압은 인간을 분열시키고 그들의 몸으로부터 자아를 분리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위치가 안정적이라면 주변 상황에 매우 탄력적일 수 있지만, 자아의 개발 속에서는 유약한 존재이다. 자아의 구성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몸 안에 있지 않은 것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협상한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그리고 자아와 타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협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그렇기에 심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성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폭력은 몸에 체현된다. 폭력은 자아와 그것의 외부 사이의 긴장을 착취함으로써 발생한다. Laing에 따르면, "만약 우리의 경험이 파괴된다면, 우리의 행위는 붕괴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몸에 대한 폭력을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 그 폭력에 대한 기억은 인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몸에 가해진 폭력의 기억뿐 아니라 몸에 강하게 남겨진 기억들은 몸 자체 내에 축적되어 끊임없이 재생된다.

신체에 자행되는 폭력은 자아를 빼앗고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신체로부터 분리시켜 그들을 단편화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파괴는 자아의 파괴이며, 또한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회화된 성적존재로, 사회에 의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습득/구성해온 존재로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인간은 분명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사회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생물학적인 성은 없다. 따라서 한 개인의 성역할 및 섹슈얼리티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것은 곧 그 개인의 자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 그리고 성적 서비스를 여타의 노동 및 서비스와 다른 위치로 사고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욕망'은 욕구와 필요성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물질 기반 및 충족 기제를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된다. 성적 욕망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통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여성의 몸/성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사회적인 성별 위계 질서의 산물이다.

3. 여성의 몸, 여성의 물질화 그리고 여성의 자아, 섹슈얼리티

"사회가 성으로 물들어있을 때 성은 여성의 신체-즉 소유되고 잡을 수 있는 것-와 동일시된다. 성애화(sexualization)된 사회에서 여성은 '성애화된 육체'(sexed body)일 뿐이다. 사회의 성애화는 여성성을 단지 성의 취득으로 구조화한다. 성애화된 육체로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성에 이용되기 쉽고 각기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남성은 성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남용하거나 때때로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남성은 성애화의 객체는 아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성애화된 육체로 여겨지지 않는다. 남성은 그들의 정력을 비하시키지 않는다. 남성의 성은 피할 수 없는 즉 본능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성적 욕망은 장려된다. 남성의 정체성은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구성되지 그들의 신체기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성적정체성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둘러지는 반면에 남성은 그들의 정체성을 행동하는 존재로서 취득한다."

- K.Barry, <Prostitution of sexuality>

여성이 사물, 혹은 대상으로 취급되는 과정은 성애화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조화되어 나타난다. 성애화는 사회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드리워지듯이 사회 깊숙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전과정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간다. 그러나,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존재하는 방식이-남성이 존재하는 방식이 남성의 몸이 아닌 것이 비해- 바로 여성의 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단지 여성의 육체37)만으로, 착취될 수 있는, 종속되어 있는, 열등하게 취급되는 대상으로서 비하될 때, 그것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대한 성적착취와 파괴, 그리고 폭력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성애화된 육체, 주체성이 결여된 육체, 이용될 수 있는 육체로서의 여성(물질화된 여성)은 남성 지배 사회에서 수많은 폭력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도록 하기도 한다. 이 때 여성은 자신의 몸과 자아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몸에 기억된 공포가 상기되었을 때,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남성 폭력이 다시 한 번 여성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4. 나아가며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을 쓰며 내가 했던 '복잡한' 고민들이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하다. 더 깊은 고민과 세련된 말솜씨를 필요로 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내 고민을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거친 고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글이 함께 이야기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기본적으로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성애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그녀의 전체적인 인격으로 자리매김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그녀의 성에 의해 위치지어진다는 것과 그것이 현실에서는 여성이 그녀의 (성애화된) 몸(sexualized body)을 통해 드러나게 되며, 그 과정은 전 역사적으로 남성의 폭력성이 만들어지고 발현되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남성이 여성의 몸을 취득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대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의 물질화 현상인 것이다. 두 과정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시간 차이도 없이 즉각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

37) 여기에서의 '신체'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의 폭력 속에 노출되어있는 육체를 말한다

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아를 남성의 시각/행위에 의해 혹은 그 시각과 행위의 폭력성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물질화 해 나가는 과정은 남성의 행위 후에 오는(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정인 것이다.

끝으로 이 글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과연 여성은 지금 이 사회에서 '인간'인가? 그 구체적 현상은 어떠한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밖에도 거친 글 중간 중간에 드러나고 있는 풀리지 않은 지점들에 대해서는 나와 당신이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 글은 나의 입장이고, 생각이며, 실천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생산적인 논쟁을 기대한다.

IV. 결론 — 우리는 성매매가 없는 세상을 상상한다.

'동의'를 거쳤든 아니든, 그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당사자 여성이 그 행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우리의 주안점으로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단독자적인 자유주의의 '동의' 개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페미니즘의 방식이다.

여성들이 성매매 경험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여성들이 성매매 행위와 자신의 자아를 분리시키려 노력한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그 경험을 즐기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돈을 필요로 하기에 성매매 행위에서 전혀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여성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 상황에서 이탈시킨다. 그리고 키스 거부 등의 자신만의 금기를 만들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원미혜는 이러한 노력들을 신체의 침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강간을 당한 경우에 매춘여성들은 그저 이를 "돈을 못 받은 경우"라고 표현한다(Barry, 1995). 이는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성이 강간적 성과 그리 다를 바 없음을 시사한다. 즉 성매매와 강간은 행동 양태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닌 화대 지분의 유무로 구별될 뿐, 비인간화된 육체로서의 여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여성들은 순결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다른 산업으로의 진입 장벽은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성산업으로의 진출은 점점 쉬워져가는 현실, 대중매체와 포르노에 의해 더욱더 성매매되는 여성의 몸 이미지, 남성 집단문화의 남성성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성이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 성산업에 진입한다. 많은 여성들이 순결 상실을 성매매산업 진입의 동기로 이야기하는 상황, 성을 산 남성과 성을 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상이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에는, 자유주의적 '계약'이라거나 '노동'의 한 형태라고 명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젠더의 문제가 깔려 있다. 그것은 집단으로서의 한 성(性)이 역시 집단으로서의 다른 성(性)을 지배하는 각본에 대한 이야기이며, 끊임없이 그 지배-피지배의 구도를 재생산하는 기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는,

우리가 노예와 인종차별과 영아살해와 여성유혈절개가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을 배워왔듯이,
성매매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론> 성매매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³⁸⁾

-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호가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한다'는 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런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존재 자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TV도 돈 있고 권력 있는 남자들은 옆에 이런 여자 끼고 술 마시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니? 사극만 봐도 권력자들이 기생 끼고 술 마시는 것 봐라. 그런 지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사는 것과 권력을 가지는 것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 (가보니까 좋아?) 글썄... 맨 정신으로 그런데 가서 섹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런데 혼자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충동구매"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충동구매, 충동적 욕구는 갑자기 생겼다가보다는 한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진 것들이라, 그런 욕구들이 우연한 기회에 폭발하는 거지.

- 그런 여자랑 잘 때... 글썄 남자들에게 있어 성적 만족이란 여자를 만족시켜 줄 때야. 그래서 어떻게든 여자들이 만족하는 걸 봐야 성취감을 느끼거든 (너두?)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성취감이란 게 어떤 느낌인데?) 이 여자가 나한테 톡갔다. 막말로 내가 이 여자를 정복했다는 심리지. 그런 심리가 없다면 뭐 굳이 여자랑 섹스하려고 하겠어? (매춘여성과 자는 데도 말이야?) 물론이지. 하지만 그 여자들이야 무슨 만족을 느끼겠어? 빨리 끝내고 가기만을 바라겠지.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런 것(만족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쓰는 것 같아.

- 사실,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몇 번 들락거리기는 했죠. 술 취해 가지고, 호기심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데 잘 안가요... (중략) 뭐 그 중에 장가 안 간 친구가 있으면 신경 써준다는 의미에서 슬쩍 알까? 라고 물어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회사에서는요?) 가끔 더러는 자기들끼리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전 싫어요.

- (매춘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매춘이 없다면 강간이 더 증가될 지 모르죠. 그건 분명히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처음 그런 곳에 간 것은 17살 때였어. 노가다하다 만난 사람과 멋 모르고 취해서 갔지. 나보다 7-8살 나이 많은 여자였는데, 완전히 엄마랑 자는 느낌이다. (여자랑 처음 섹스였어?) 응, 처음 여자랑 자는 거였어. 내가 살았던 동네를 금호동이나 성수동 상계동 이쪽 지역에는 애들끼리 돌림방하

38) 원미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 '성매매 합법화 토론회 자료집', 1995.
장필화,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몸/성', 또 하나의 문화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성매매와 남성의 성인식', 한국여성개발원, 1998.

는 경우가 많았거든. 여자 한 명 놓고 돌아가면서 섹스하는 거. (윤간 말이야? 타의로?) 물론 처음에는 합의하에 어울리다가 반강제로 하는 거지. 여자도 점점 그런 일이 비밀비재했어... (그러면 그때 친구들은 매춘하고 나서 여자애들을 돌림방하는 일이 없어졌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꼬셔서 '따먹는' 걸 더 쳐주니까. 또 오히려 포르노 같은 거 보고 더 심해지지.

- 예를 들어 사람이 맨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식도 먹을 수 있듯이 성이란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군대 휴가 중에 친구와 처음 가 보았다. 하나도 좋을 게 없었다.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쾌하고 어려웠다. 병에 대한 걱정이나 강박관념도 있고... (28세, 사무직)
-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빠져 나오기는 어렵다. 물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에 가야지' 싶으면 방에 들어갔다가 (성 관계를) 하지는 않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다. (47세, 관리직)
- 죄책감 같은 것은 없다. 일을 치르고 뒤돌아 나하면 깨끗하게 잊는다. 그러니까 자주 할 수 있다. (26세, 사무직)
- 매춘은 성적욕망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솔직히 매춘은 사랑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별 죄책감이 없다. 아내가 채워주지 못한 불만족 때문에 이런 여성들을 찾을 때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욕을 자제하는 것보다는 푸는 것이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매춘은 가끔 필요할 때가 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별 다르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데 매춘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매춘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룸살롱에 데려갔다. 신입 사원을 챙겨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술도 잘 마시고 아가씨 몸도 잘 만지고 그래야 한다. 술집에 갈 때마다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자와 관계까지 갖게 되는 경우는 20~30% 정도이다. (30세, 사무직)
- 영업 부서에서는 동료나 거래처간에 2차로 여자있는 술집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가지 않으면 '대접 안했다', '대접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내 경험에 의하면 술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경험을 들자면... 한번은 내가 모시는 상관하고 거래처 관리자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술 한잔 하자고 제의해서 결국 잘 해결된 적이 있었다. (30세, 사무직)
- 그런 거 싫어하는 남자는 '포다'이다... 정말로 남자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남자 사회에서 제외

된다. (37세, 관리직)

- 접대 받는 사람이 즐겁게 분위기를 잘 살린다. 이 얘기는 여자를 아주 잘 다룬다는 얘기인데, 여자를 잘 다룬다는 것은 옷을 안 벗을 애가 옷을 벗고, 옷을 하나만 벗을 애가 두 개를 벗게 만드는 걸 말한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생존전략으로 삼은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에 눈을 뜨게 된다.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겠지만 남성들은 그런 기회가 많다. 그리고 남성들은 성욕이 생기면 분출해야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전 유교주의 전통에 의해 허용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 남성들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모든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일종의 게임이랄까. 마치 전자 오락실에 들어가서 게임 한판하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아마 시술소나 증기탕에는 sex하러 들어가는지 다 알지만 전자 오락실에 오락하러 들어간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한다.



여성노동 대토론회

대학여운단위에서의 여성노동 역사

▶ IMF의 충격과 여노대련 활동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에 있어서 여성노동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97년 말 IMF라는 위기 상황이 한국사회 전역을 한바탕 휩쓸고, 여기저기에서 노동권, 생존권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였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IMF는 우리에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학계와 여러 운동 전영의 담론과 운동 방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과학학계는 90년대 열병처럼 학계를 휩쓸었던 문화담론, 포스트모던 담론에 대한 반성의 맥락에서 학문의 위기, 위기의 학문을 외치는 목소리가 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노동계에서는 해고로부터, 신규실업으로부터, 파견근로제, 계약직 등 불안정한 노동형태로부터 안정적인 고용 형태에 대한 요구가 투쟁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IMF의 충격을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들이 받아들인 방식은 마구잡이식 구조조정 속에서 가장 커다란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았던 여성 노동권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98년 6월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의 발족으로 나타났는데, 그 모임은 여성 노동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각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들이 연대한 최초의 여성노동관련 연대체였고,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의 담론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는 이후에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이하 여노대련)'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하다가 99년 초에 자체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른다.

여노대련의 결성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90년대 이후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여성노동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게 된 것은 IMF 경제위기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였다. 그 당시에 여노대련 활동을 했던 선배들은 여노대련의 결성과 활동이 '정세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었다고 술회한다. 여성우선해고, 신규여성실업,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등의 잔혹한 현실은 여성운동가들에게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었던 것이다. 특히 신규여성실업의 문제는 바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기에, 더욱 더 '여대생'이라는 정체성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화두였다.

나는 여노대련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기간에 이루어졌던 여노대련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노대련의 경험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던져주었다. 하나는 대학 사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노동자라는 정체성과 어떤 관계맺음을 해야 하는지, 여성들간에 존재하는 계급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기존의 노동운동 전영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하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 혹은 노동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99년 여성연대한판 자료집). 앞서 언급한대로, 여노대련은 임금노동시장, 즉 공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 배제, 여성의 종속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함과 동시에 남성적 담론에 의해 은폐되어왔던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설정했다. 사실 공/사의 영역은 확실하게 구분되지도 않는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행하는 노동의 성격은 대부분 어머니, 보살핌자, 남성의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역할, 즉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여성노동의 문제는 공/사의 영역을 횡단하며, 공/사의 영역은 여성노동의 문제에서 중첩된다. 결국 문제는 '노동'의 개념을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전체 하에서 여성노동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이제까지 재생산노동, 감정노동 등 여성의 노동이 담론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왔던 긴 역사만큼이나 힘든 것이었다. 단순히 임금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 민중'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여성주의적인 노동'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여노대련의 과제는 사실상 내용의 발전, 재구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 방법론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거시적인 틀만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여노대련 스스로의 평가를 남겨놓았다 (99년 여성연대한판 자료집).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노대련 활동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노대련이 '정세적 요구'에 의해 출발했고, 여노대련의 결성을 추동했던 '정세적 요구'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결코 여성노동권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여노대련이 자체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대체라는 위상의 모호함, 참가 단위 내부적 상황 등의 약제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노동권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활동의 방향성이라는 알맹이가 내실있게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노대련을 결성하고 지탱하게 해 주었던 외부적 요구가 점점 사라지면서 여노대련의 활동은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노대련의 활동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여노대련은 해소되었지만 여노대련을 기점으로 시작된 여성노동권에 대한 고민은 (미약하나마) 계속해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에게 이어졌고,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의 모습으로 외화되기도 했다.

▶ 여노대련의 해소 이후 — 여성노동모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99년 초에 여노대련의 활동이 해소되고 난 후, 여노대련에 참가했던 몇몇 단위들(살맛나는 세상, 이대, 연대, 성대)은 모여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여성노동' 모임을 꾸린다. 성대와 (최근에) 이대가 빠진 상태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성노동모임은 금직금직한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엔 역량이 부족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의 적극적 결합, 여성연대한판 결합, 한 차례로 끝나버린 소식지 발간,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두, 세 차례로 끝나버린 여성노동관련 열린 세미나, 군가산계 대책위 제안, 남녀차별금지법 설명회 등 소소하나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여성노동모임 활동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정리된 관

점이 부재했다는 것이었다. 노동 개념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이라는 문제는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열린 세미나를 통해 풀어보려 했지만, '열린' 세미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여성노동모임 외부 여성주의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게다가 신규여성실업문제, 군가산제, 사내 부부 중에서 여성노동자를 대기 해고했던 농협 사태 등 우리가 흔히 '정세'라고 부르는 가시적인 여성 노동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깊은 고민은 상당부분 유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노동모임은 여노대련 시기부터 시작된 난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기존의 고민들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여성노동운동을 함에 있어서 여대생이라는 정체성의 문제, 노동 개념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기반한 활동 방향 수립과 아이템 생산 등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것이며, 한편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연대, 이대, 살맛 이렇게 세 단위로 여성노동모임이 유지되면서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여성노동모임의 활동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이유이다.

▶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

90년대 이후 대학 내에서 이루어진 여성노동운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에 대한 평가를 빠트릴 수는 없다. 99년에 처음으로 구성되어 2000년에 두 번째 구성을 거쳐 2001년에는 실패로 끝났던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은 비록 두 차례밖에 구성되지 않았지만 여성주의자들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못하는 경험으로 남아있다.

여/聲의 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1회 여/聲의 활동은 기획단에 참여했던, 그리고 4·30, 메이데이에 참여했던 모든 여성주의자들에게 가슴 벅찬 경험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여/聲이 꾸려지기 이전 각 대학의 것발 아래에서 메이데이에 참여해 여성노동권과 관련된 구호 한번 제대로 외쳐보지 못했었고, 웬지 손님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은 여/聲이란 이름으로 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독자적인 대오를 형성해서 우리의 요구를 목이 터져라 외침으로써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맛보았다. 그러한 뿌듯함은 기존 학생운동 단위, 혹은 기존 노동운동 단위들과의 차이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이다. 집회에 참여했던 다른 단위들이 모두 정리구호를 '고용안정 쟁취'라고 외칠 때 우리는 '여성노동권 쟁취'라고 외치면서 묘한 긴장을 유지했고, '재네들은 누구지?'라고 물어보는 듯한 호기심어린 눈으로 우리의 티셔츠에 적힌 우리의 구호를 유심히 쳐다보던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구호에 묻힐새라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구호를 악을 쓰며 외치는 것으로 화답했다.

또다른 한편 여/聲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성공적 연대의 경험으로 남아있다. 여/聲 이전에도 여노대련, 성폭력 연대회의 등 연대의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1회 여/聲에는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대 학생문화관의 회의실을 가득 채울 정도의 단위들이 참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소중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다. 1회 여/聲에 참여했던 단위들은 이후 미인대회 반대 모임 'kill'과 99년 여성연대판으로 이어졌다.

99년과 2000년 여/聲에서 제출했던 요구와 기조를 살펴봄으로써 여/聲의 활동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회 여/聲의 핵심 구호는 가족임금제 반대!/성차별적 고용 및 해고 반대!/신규여성실업 해결! 이렇게 세 가지이고, 신규여성실업문제와 관련해 군가산제 폐지와 고용할당제 확대 실시라는 두 가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당시 자료집의 일부분이다.

이런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메이데이로 간다. 정권의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95%의 미조직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기에 똑똑히, 뚜렷이 알려내고 여성노동자들의 평생평등의 노동권을 확장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간에 이야기 된 차이가 인정되지 않은 채 주장되는 노동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다움의 노동권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4.30 청년학생 한마당으로 간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하기에 현 상황 하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서서히 실망실업자로 은폐되고 있는 신규 여성 실업자들의 문제를 알려 낼 것이다. 인간 해방을 위한 노동권 확보라는 동일성에서 출발하지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내고 좀더 확장된 청년실업운동으로 적극적인 비판과 지지의 세력 군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1회 여/聲을 준비하면서 여성주의자들은 또 한번 진보진영에게 쓰라린 배신감을 느껴야 했는데, 여성주의자들에게 배신의 일격을 가했던 것은 민주노총의 그 유명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포스터였다. 포스터의 전면에는 머리에 '투쟁'을 의미하는 끈을 질끈 두르고 투쟁의 현장으로 나가는 남성 노동자가, 그 뒤에는 흑백으로 아이를 안고 남편을 배웅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흐릿하게 배치되고 포스터의 하단에 '당신만이 희망입니다'라는 문구가 버티고 있었던 그 포스터는 대표노동자로서 남성의 위치를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진영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포스터에서 임금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온데간데 없으며, 투쟁하는, 그리고 가족을 먹여살리는 남성 가장 노동자와 그러한 남성을 보조하는 여성의 이분법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처음으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독자적인 대오를 형성해 메이데이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 터진 사건인 만큼 여성주의자들은 민주노총의 만행에 대해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여/聲은 조직적으로 민주노총의 통신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렸고, 결국 민주노총의 (성의 없긴 하지만) 사과를 받아냈다. 메이데이의 준비 과정에 터졌던 이 사건으로 인해 1회 여/聲의 활동에는 진보진영 내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또 하나의 고민이 첨가되었다.

2차 여/聲은 첫 번째 메이데이 기획단에 비해서는 많은 단위들이 준비과정에 결합하지 않았다. 1차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단위들이 모일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두 번째 기획단은 많은 단위들이 함께 하지 않았기에 2000년 메이데이의 준비는 2차 여/聲을 준비했던 여성주의자들에게 매우 힘겨운 과정이었다고 기억된다. 2차 여/聲의 정식 명칭은 '여성 노동권 확보!! 진보진영내 가부장성 철폐!!'를 위한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으로서 이 명칭은 두 번째 여/聲의 기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회 여/聲에서 제출된 핵심 과제는 군가산제/비정규직/여성실업/진보진영 내의 가부장성에 대한 공세적 문제제기/메이데이 준비과정상의 대표자 중심성과 노문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특히 2회 여/생의 활동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은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진보진영 내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는 핵심 과제에서도 진보진영 내의 가부장성에 대한 공세적 문제제기라는 요구와 메이데이 준비과정상의 대표자 중심성과 노동문제 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두 가지 과제로 표현되었다. 이는 울산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사건, 보건의료노조 송보순 사건을 거치면서 축적되었던 여성주의자들의 진보진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2차 여/생의 활동을 정리해보면,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이데이의 준비과정에 참여한 단위들의 숫적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차 여/생의 제기 배경이 워낙 여성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적 조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97년 말 이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여성노동권의 문제는 결코 나아진 바 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노대련의 해소 이후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그에 대한 별다른 가시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했던 상황에서 메이데이 기획단 여/생의 제안은 다시금 여성노동권의 문제를 가지고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을 모을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진보진영 내 가부장성에 대한 공격이 2차 여/생의 활동을 끌고 갔던 가장 주요한 축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99년 민주노총의 포스터 만행을 계기로 1회 때에도 진보진영 내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2000년에는 그것이 2회 여/생의 활동을 특징지을 만큼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관악 여성 운동의 시각 및 방향에 대한 토론

■ 관악에서 이루어진 여성노동운동 돌아보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관악여성운동에서 여성노동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시기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것들 토대로 문제점 및 과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1) 시기별

- 1999년 여름, 인문대를 중심으로 여성농민반 활동
- 1999년 2학기, 인문대 학생회 선거 기간 중 여성운동진영(성역파괴)에서 대졸여성실업문제를 중심으로 여성노동권 문제가 제기됨
- 1999년 겨울방학, manifesto II에서 주관한 <맑스주의와 페미니즘> 세미나
- 1999년~2000년 겨울, 군사산재 투쟁(자보를 통한 학내선전 중심)
- 2000년 1학기, 메이데이 기간에 "SISTER-ACT" 활동(비정규직, 모성보호를 중심사안으로 제기)
- 2000년 1학기, 삼부커뮤니케이션 투쟁 결합. 삼부투쟁을 계기로 관악 학단위들과 전국여노 서울지부와의 정기적인 연대테이아웃(올밀대)이 마련됨
- 2000년 2학기, 페미니즘 문화제 기간 동안 여노 연대 장터 및 자보전, 서명운동 등이 이루어짐. 특수고용 여성 노동자의 법적 권리 문제가 적게나마 알려짐
- 2000년 겨울방학, 인문대 여성운동 동아리(올나리)에서 여성노동세미나 진행
- 2001년 겨울방학, 올밀대 주관 <전국 여성노조와 학단위가 함께하는 여성노동캠프> 진행
- 2001년 1학기, 메이데이 기간에 '여성노동워크샵' 진행
- 2001년 1학기, 관악여노 중심으로 모성보호 및 최저임금제 관련 투쟁 중

반성폭력 운동은 관악 내 여성운동단위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사안이었으며, 반성폭력 학칙제정이라는 사안을 통해 관악 내 여성운동 단위들은 비로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반성폭력 운동은 분명 여성의 일상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고, 일상 속에 드리워진 남성 중심성 및 여성억압을 지적하는데 일조했다.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물인 학칙 제정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되자, 관악 여성운동 진영은 '여성억압'에 대한 다양한 운동 지점들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기를 기획하게 되었다.³⁹⁾

39) 물론 이 시점에서 여성노동이라는 사안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진 이중 억압에 대해 사회적으로 커다랗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탓도 클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성 운동 진영에서 '여성 억압'에 대해 발언하는 지점들이 폭넓어지고 다양해진 탓 역시 크다는 것을 전제하려 한다.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의 몸/섹슈얼리티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운동이었다. 즉, 여성 억압의 다양한 측면 중 한 부분—그러나 굉장히 중요한—에 문제제기한 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타 여성 억압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의 운동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한 여성에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정체성들이 강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성/젠더라는 틀로서 발언되지 못했던 탓이 더 클 것이다.

초기 여성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존의 좌파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고 여성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기존의 좌파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독자적인 존재기반을 가지려고 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는 관악 여성운동 진영에서 '왜 여성노동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악여모는 지난 겨울방학에 전국 여성노동 조합과 함께 <여성노동캠프>를 진행했으며, 올해 메이데이 기간에는 '여성노동워크샵'을 준비했다.

이러한 활동 중, 특히 워크샵은 '여성의 삶에서 노동이 어떤 의미인가, 내지는 여성운동에 있어 여성노동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중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여성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이—성별 이데올로기, 성별분업을 둘러싼 가부장제의 작동원리, 섹슈얼리티 등—'여성 노동'이라는 현실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고민하려 하였다.

(2) 유형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노동이슈에 대한 교육선전(강연회, 세미나 등)

•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원/연대(삼부커뮤니티 투쟁 등)

Q : 삼부 투쟁 이후 별다른 연대의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는?

A1 : 여성노동을 항시적으로 주되게 고민하는 단위가 부재하기 때문?

A2 : 여성노동을 자신의 현실로서 고민하게끔 강제하는 현실의 부재 때문?

•여성노동조합과의 연대 : 올밀대 일년 평가

1. 올밀대의 활동배경과 활동내용

올밀대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관악의 몇몇 학단위들 간에 이루어진 연대태이블을 말한다. 올밀대에 결합하고 있는 단위에는 관악여성모임연대, 인문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국문과 학생회가 있다. 올밀대가 결성된 것은 2000년 봄으로, 삼부 커뮤닉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악 학단위들이 연대하면서 전국 여성노동조합과 공식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당시 관악 운동 진영에서는 여성독자 노조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때였다.

올밀대는 월1회의 정기모임을 꾸준히 가지면서 연대사업을 해왔다. 일상적인 연대사업으로서 월1회 실시되는 전국여성노조 집중 캠페인에 함께 하였으며 주1회 실시되는 지하철 선전물 배포를 학단위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2000년 가을, 관악 페미니즘 문화제에서는 여노 풍물패 팀의 공연과 연대장터, 여성노동문제를 다룬 자보전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무렵 올밀대에 참가하고 있는 운동단위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 확대 문제를 학내에서 이슈화하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 겨울, 올밀대에서는 여성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우들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캠프를 개최하

였다. 여성노동캠프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현장감있게 알리고 학내에서의 여성노동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1박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으로는 영상물 보기, 여성노동문제에 관한 세미나, '비정규직 언니와의 대화', 노조 활동가와의 간담회 등이 있었다.

2001년 3월에는 여성노동캠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밀대 참가 학단위들이 장기적으로 연대하여 학내에서 공동의 대중운동을 벌여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38여성의 날을 맞은 학내 선전전과 전국여성노조 38맞이 집회의 학내 조직화를 함께 성사시키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4월, 관악여성모임연대에서는 모성보호법 개정집회에 산발적으로나마 결합하기 시작하는 한편, 여성운동모임에서의 여성노동운동이란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문제의식으로 여성노동워크샵을 진행하였다. 같은 시기, 올밀대의 학생회 참가단위들은 학내에서 여성노동권 쟁취를 기치로 제각기 운동을 펼쳤다. 관악여모를 비롯한 몇몇 단위들에서는 메이데이 당일을 전후하여 모성권 투쟁과 관련하여 학내의 피세일을 진행하였다.

2001년 5, 6월, 모성보호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관악여모를 비롯한 올밀대 참가 학단위들에서는 모성권 투쟁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각 단위 내부로부터 충분한 동인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몇몇 활동가들이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메이데이 시기에 올밀대 참가 각 단위들이 여성노동문제를 학내에서 풀어내는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들간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5, 6월 투쟁에서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다.

2001년 6월, 전국여성노조에서는 법정최저임금인상을 주된 투쟁목표로 하여 집회 및 서명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던 시기였으나 올밀대 참가 학단위들은 이에 대한 연대활동을 거의 벌이지 못하였다.

2. 평가

위의 활동내용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올밀대는 여성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단위들이 서로 균등한 입장에서 모인 것이라기보다는, 학단위들이 제각기 여성노조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모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대부분이 관악에서의 여성노동운동을 이끌어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된 것보다는 노조에 의해 주어지는 선전전에 단위 사람들을 데리고 참여하는 식이었다(물론 정세에 따라 올밀대의 이름으로 피를 내고 집회 조직화를 한 일이나, 방학을 맞아 여성노동캠프 같은 행사를 치뤘던 일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말이다). 올밀대에서 이루어지는 연대사업의 내용이 몇몇 활동가들의 자활 수준에 그칠 뿐, 학내에서의 대중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어째서일까?

우선, 전국여성노조라는 조직이 연대의 대상으로서 적합했는가의 문제를 보아야겠다. 물론 분명한 것은 전국여성노조와의 안정적인 연대태이블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여성노동과 관련한 정세에 보다 민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모성보호법, 법정최저임금의 문제 등). 전국여성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쟁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조와 학단위는 활동 사이클에 있어 차이가 클뿐더러, 전국여성노조에서 운동의 많은 부분을 캠페인과 법 개정운동에 쏟고 있어 학단위가 주체적으로 이에 참여하거나 학내에서 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노동운동을 펼치기 위한 학내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데 있다. 대학

여성운동의 기반은 여대생들인 만큼(전국여성노조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중년-기혼-여성들이다) 그에 알맞은 언어를 만들고 투쟁사안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의 개념 역시 전통적인 시각과는 다른 시각이 요구되며 그 범주 또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여성노조와 같은 현장 단체와의 연대들은 유지하되, 그와 동시에 학내여성운동의 독자적인 시각 정립과 조직화 경로의 확보가 진행되어야겠다.

사실, 이러한 결론은 벌써부터 나와있던 것이고, 지난 시기 여노대련, 여/성, 여성노동 등 학내여성운동의 독자적인 세력화에 기반한 여성노동운동들이 이미 시도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노조와 연대하고 있는 관악의 경험을 기대에 가득 찬 심정으로 듣고자 했던 분들에게는 뻔한 결론으로 인해 아쉬움만 남기는 글이 되고 말았다. 어쩌면 올밀대의 긍정적인 성과들을 적극 부각시켜 말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후회마저 들고 있는 참이다. 뻔한 사실만큼 중요한 사실이 있겠느냐는 자위를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메이데이 기간 : 여성노동워크샵

여성노동워크샵은 관악 여성운동 진영에서 여성노동이라는 주제가 단 한번도 공적인 논의를 거쳐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상당부분 기인하여 기획되었다. 여성노동은 관악 여모의 운동 주제 중 하나였지만, 이것은 여성노동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의 결합을 통해서 지속되어 왔을 뿐 관악 여성운동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여성노동 워크샵은 여성노동의 현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여성인가'에 대답하는 것, 그리고 여성운동에 있어 여성노동운동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여성노동이라는 화두를 학내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만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단 한번의 워크샵에서 이 모든 고민들이 해결될 리는 없었지만...) 워크샵 이후 가장 크게 지적되었던 문제점은 관악 내 여성노동단위의 폭넓은 참여가 결여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워크샵 자체는 무리 없이 이루어졌으나, 참가자의 상당부분이 기존 좌파 운동진영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이번 워크샵은 이후 여성노동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들간의 논쟁/논의의 장이 되지 못했다.

■ 기간 활동을 통해 고민해 보는 구체적 전략

우선 '올밀대'에서 주관한 여성노동캠프에서 고민되었던 지점과 전략들을 열거한 뒤 여성노동워크샵에서 논의되었던 지점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1) 여성노동캠프에서 이뤄진 고민들과 전략 모색

- Q : 삼부 투쟁 이후 별다른 연대의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는?

A1 : 여성노동을 항시적으로 주되게 고민하는 단위가 부재하기 때문?

A2 : 여성노동을 자신의 현실로서 고민하게끔 강제하는 현실의 부재 때문40)?

-대학 내 여성운동을 대중적으로 이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이는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여성노동자를 하나의 '민중'으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졸업 이후 취업난/불평등 노동을 경험하게 될 여대생들을 저항의 주체로서 조직할 것인가, 혹은 제3의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서울대의 경우,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자신을 스스로 예비실업자 혹은 여성노동자로 규정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에서는 '여대생 예비 실업문제'라는 화두로 학내 운동을 만드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단 노동지기의 사례를 볼 때, 여성전용 취업 수첩 발간이나 취업관련 설문조사 등의 사업은 여성 노동시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동시에 대중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판단이 든다.)

-마찬가지로,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자기동기를 부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선전의 문제에 있어 더 크게 드러난다.

-대학 여성운동 차원에서 여성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연대체 그 자체로는 각 단위 내의 담론화, 조직화를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연대체에 참가하는 각 단위에서 연대테이블의 활동을 모두 받아 안기는 어렵기에 연대체의 구성 이전에, 단위 내에서 여성 노동운동의 방향성 및 관점을 정립하고 조직화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여성노동워크샵을 통해 이루어진 고민 및 방향모색

우선 여성노동워크샵은 지금까지 관악 여성운동 진영에서 여성노동이라는 주제가 단 한 번도 공적인 논의를 거쳐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여성노동운동이 여성운동의 급진적 전망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악 내 여성운동단위의 논의/논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던 자리였다. 따라서 워크샵은 '여성의 삶에서 노동이 어떤 의미인가, 내지는 여성운동에 있어 여성노동운동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합의/결정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선 워크샵이 어떻게 구성/진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 한다.

▶ 제1term : '여성의 일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여성은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조직하기에, 여성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는 단지 노동시장이나 작업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첫 번째 term에서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여성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 했다. 즉 '여성의 일'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40) 이 문제는 '여성노동 문제'가 단순히 작업장이나 노동시장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여성노동 조합이 학단위의 연대를 이끌어낼 대규모 정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제기되었다. 분명 여성노동 조합이 소규모 단위 사업장의 투쟁 및 조직화를 중심적인 사업으로 할 때, 연대하고 있는 학단위들이 학내 운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여성노조가 대규모의 대중투쟁이 가능한 정세를 생산할 수 있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다른 변수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로 말해서 왜 여성들에게는 특정한 '여성적' 직종만이 허락되며 또 이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지, 남성과 같은 직종에 취업해도 여성은 그 안에서 '어머니 역할'을 기대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여성의 노동이 낮은 생산성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임금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논리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대답해보고자 했다. 즉, 이것은 관악에서 여성노동을 바라볼 관점을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였다.

■ 제2term : 모성보호

두 번째 term은 사회적으로 모성보호가 하나의 정세로서 떠오르고 있음에 크게 기인하여 제안되었다. 이것은 여성운동의 '물정세성'을 반성하고, 동시에 '모성보호'에 대한 대학 여성 운동의 관점을 정세에 흐리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 즉 정세에 휩쓸리지 않고 대학여성운동의 독자적 시각을 유지시키고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은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실 현실의 여성노동운동으로 이어지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여모에서는 우선 제2term에서 생산된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메이데이 때 학단위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에 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관점'이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생산/배포했다.

■ 제3term : 노동과 섹슈얼리티

우리는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sexuality가 배제와 폭력의 기제로서 사용됨을 지적함과 동시에 노동자 원으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여성에게 있어 sexuality는 그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노동과정 전반에 개입한다.

흔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기실 노동시장 자체가 여성의 sexuality를 요구하는 공간임을 주목해보자. 즉 여성에게 있어 노동과 sexuality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무엇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은 노동과 전혀 무관한 어떤 공간으로 격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성적으로 재편된 노동/일(sexualized labour/work)의 한 지점에 자리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이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그 노동이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악 내 많은 여성운동 단위들이 여성노동운동을 여성운동으로 가져가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여성노동이라는 화두가 sexuality와 일견 무관해 보이는 것에 있었다. 또한 이제까지 관악에서 sexuality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성폭력'이라는 지점 외에는 다른 연계지점을 찾지 못한 채 이루어져 왔다. 우리는 여성에게 있어 '노동'이라는 영역이 sexuality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내에서 여성노동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할 때 그 고민은 분명 sexuality에 중심을 두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주목하여 노동운동의 방향 역시 sexuality를 중심적인 의제로서 가져가야 함을 지적하려 했다.

물론 3term 기획 초기에 제기되었던 이러한 문제지점들은 기실 관악 여모의 인자들이 가지는 일련의 상황/정세성 및 현실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여모의 구성인자의 상당수가 radical feminism의 인식론적 틀을 받아 안고 있다는 것, 또한 대학 여성운동 진영에서 유효

하게 낼 수 있는 사안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전제하고서 우리의 문제의식 및 결론에 접근하길 부탁한다. 한편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 시도했던 여러 작업들이, 기실 현실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여타 문제들은, 여성노동운동이 단위에서 관심 있는 개인의 참여만으로 구성되는 운동이 아니라 단위의 중심적인 운동 사안으로 사고될 때 짚어보아야 할 여러 난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배치되어야 할 문제들일 것이다.

연(세)대에서 여성노동운동 돌아보기 우린 이제 시작이다!

■ 연대에서는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기간의 여성노동활동들을 되짚어보면 98년 이후의 여노대론 활동, 여노대론이 해소된 99년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여성노동모임활동, 그리고 메이데이 기획단 여/생의 지속적 참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7월	예비 취업 여대생을 위한 캠프 "여성의 현실, 몸으로 느끼고 희망으로 조직하자"
1998년 9월	여성 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 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여노대론)
1998년 10월	살아야 한다!! 탈출구, 비상구를 찾아서 취업간담회 "환상 속에 그대가있다 - 취업피담" 강연회 "신규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응책"
2000년 1학기	군가산제 투쟁
2000년 5월	메이데이 여/생 기획단 참여
2001년 3월	3.8 여성의 날 기획자보 (모성보호, 호주제...)
2001년 5월	모성보호 관련 입장자보
2001년 4월	메이데이 기획단 여/생

■ 지속된 흐름 그러나 경험의 단절

하지만 여성노동활동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고민들이나 경험들이 단절되었고, 새로운 인자들은 또 새롭게 여성노동을 고민해야 했다. 여성노동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단위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풀어낼 때도 '어렵다' 혹은 '와닿지 않는다'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식의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들로 시작되었다.

98년 이후부터 여성노동활동이 지속되어왔음에도 그러한 경험이 현재의 인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현재의 인자들은 또다시 처음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이것과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여성

노동 연대모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고민들이 제대로 학내에서 풀이지 못하고 단지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인 이슈를 대학내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는 활동하는 인자들에게 있어 여전히 여성노동이 '어려운', '내 일 같지 않은' 사안으로 여기지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이 쉽게 정세도 잡히지 않고 판단도 잘 서지 않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처음부터 우리들 스스로에게 기초적인 교양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여학운단위로서 여성노동 이슈에 대해 물짓(?)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선불리 일을 벌이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 자보 한 장으로 그동안 학내에서 풀어내지 못해서 느꼈던 찝찝함을 조금은 덜고 마는 식으로 여성노동에 활동들이 지속되어왔다.

■ 여성노동?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지?

여성노동모임을 하고 있는 나 자신조차 사실 '여성노동'은 어렵다. '여성노동'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더구나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제대로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틀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여성노동에 대해 새로운 이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 하기에 큰 이슈가 있어도, 어떻게 대중적으로 풀어낼지, 어떤 고민들로 심화시킬지 난감한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이라는 외제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에서 노동쟁개념화, 신규여성실업, 제3세계의 여성노동, 여성노동관련법 등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체계적으로 분류도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할지, 어떤 이야기들로 풀어낼지 어리둥절하다. 우리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세의 흐름에 맞춰 누구나 이야기하는 '모성보호'를 이야기할지, 아니면 우리학교 여학생이 느끼는 '입직시 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등과 같은 정세와 쉬운(?) 이야기부터 할 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지 과연 학우들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하나의 고민. 만약에 여성노동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여성노조단위와 연대를 한번 해볼까? 학내 다른 운동단위와 연대를 해볼까? 그네들과 일하면 정세는 쉽게 잡히고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을텐데. 아니야 그네들과 우리들은 관점이 많이 다르고,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 다닐 것이 분명해.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지? 생각할수록 복잡해진다.

■ 여성노동! 너무나 복잡하다 그러나... 간단하다

단위에서 여성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비록 전략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을지라도, 현재의 우리의 여성노동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되짚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결론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한다', '뭔가 한 번 해보자'라고 나왔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안의 내용이나 크기(?)의 부담감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성노동을 회피해왔던 것 같다. 일에 앞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은 일 앞을 가로막고, 또다시 걱정만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 의심을 품어봐야할 때다. 그 걱정과 두려움이 실체하는 과연 그럴만한 것인지

말이다.

여성 노동, 분명히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 첫걸음을 쉽게 하나씩 풀어가고자 한다.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한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을 가볍게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12대 총회에서 '취업을 위한 '뒷구멍 Network' 구축'을 이야기했었다. 연줄망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인맥 만들기, '사회에 진출한 새내기 선배 여성들과의 워크숍 개최'와 '실질적인 취업 정보의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이 그 내용이었다. 비록 경험의 부족과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지형에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냈던 경험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절실한 일이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까?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성노동운동이 쉽게 정보를 얻고 정세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여성노조단위를 통해서다. 그러나 다른 단위의 여성노조와의 연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여학운 단위로서 정말 적합한 전략인지는 고민해봐야할 문제이다. (관악의 발제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생략하겠음)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다.

■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단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미리 이런 논의를 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여성노동에 대해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며 선불리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서로가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여성노동운동을 학내에서 풀어내는 데 있어 그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여성노동에 대한 관점이나 어떻게 활동을 만들어나갈지 방향이 서지는 않았지만,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려고 한다. 우리학교 여대생 취업 설문조사나 취업토론회 또는 교수들의 추천서에서의 성차별성 조사 등을 시작하려한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여성노동운동' 혹은 '어려운 여성노동운동'이 아닌 '나의 그리고 우리의 여성노동운동'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학내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풀어내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학단위들의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매년 여성노동관련 문화제를 하는 단위도 있고, 여성노조와 연대활동을 하는 단위도 있고, 의료원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단위도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자의 활동 경험이 공유되고,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정보가 되고 힘이 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 영상물 <남·꽃·양>을 소개합니다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

□ 이 필름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집단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식당 여성노동자들을 향해 렌즈를 밀착하고 포커스를 집중하고자 한다

□ 이 필름의 테마는 98년 월별 이전의 기억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의 어떤 사건에 불현듯 물음을 던지기도 할 것이다

□ 결국 이 필름 보고서는 “늙은 식당 여성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밀한 포착이자 구체적이고 다양한 화두를 던지는 행위이다



■ 어떤 이야기

“집에 가면 남편, 아들 둘에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 혼자. 나는 내 혼자서 딸 역할 아내역할 엄마역할 다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눈만 뜨면 회사가는 사람이고, 그 시간에 갇혀 사는 사람이니까
온 몸이 파김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나, 누나로 생각하나, 부인으로 생각하나...
그랬더니 부인으로 생각한다 그거예요

부인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남편이 그래요. 니가 시집 올 때 뭐하러 왔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시집와서 아들 둘 낳아줬잖아... 뭐가 불만이나...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아닌가 봐요. 솔직히 나는 잠자리 그런 거 제대로 못해요.
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커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다운돼요.
그런데 내게 몸을 요구해요.

그럴 때 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나는 겉으로 말은 못하고 생각만 해요.
그런데 남편은 되려 내게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감정이 있어야지 자기가 원하니까 나무토막마냥 뻗뻗하게 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비극이잖아요?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되질 않는데...
그런데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잠자리를 너무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된다더군요.
그걸 보고 남편이 농담처럼 그래요. 당신 자꾸 그러면 이혼 당한다...

나는 그랬어요. 이혼당해도 좋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일을, 내 밥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영화는 43세 여성노동자가 독한 소주를 털어내고 쏟아놓는
과감한 고백과 반문으로 시작한다.
집에서도 공장에서도 밥만 지어온
그녀들의 삶과 영혼은 그 어떤 절음보다 더 뜨겁다.
그런데 그녀들이 벌이고 있는 투쟁은 너무도 복잡하고 난해하다.

십수년 칼질로 손목 뼈마디가 시큰거린다.
김치다라이 오이절인 박스를 냉장실로 넣었다 꺼냈다...
밀칠품을 한 술 큰 것을 들었다 놓았다...
허리뼈는 삭아 시도 때도 없이 걸린다.
그래도, 그녀들의 밥짓기는 계속된다.

왜...
먹고살아야 하니까...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 더...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그녀들의 일자리이다.
포기할 수 없는 그녀들의 인생이다.
십수년 그 일을 몸에 부친 그녀들의 살벌한 자존심이다.

어느 누구도 적당히 한구석으로 대충 밀쳐놓을 수 없는
독특한 일의 영역-밥의 문제, 재생산 노동의 문제를
이 사회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녀들의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작년 <평행선>이란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이 문제를 만났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2001년, 다시 이 문제를 꼼꼼이 들여다보며
그녀들의 심층으로 들어가보고자 한다.

프롤로그 밥 짓는 기계

기억

조작된 공포
노사정 합의와 국가 경제
우리는 절대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규율

'예'라고만 답하시오

소통

노동조합과 communication - 그녀와 그들은 너무 달랐다

언어

파업, 거짓말, 비디오

협상

8일간의 정치 드라마

분열

희생양

현실

평화란 없다

재생

사라지지 않는 과거

에필로그

실패한 상흔은 오래 지속된다

♀ **반성폭력 운동 토론회**

Normal Campus, Abnormal Feminist

the 1st term

■ monologue 1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어 간다.

대학에서는 성폭력사건 공개자보다도 '정상적'인 것 중의 하나다.
그것은 '공개'가 정상적이라는 뜻과 더불어 '성폭력'이 정상적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
처음엔 좀 놀라기도 했지만, 자꾸 보니까 이런 어유가 생긴다고 말한다.

자보 앞에 모인 몇몇 무리의 사람들.

대부분 사건개요를 주르륵 훑고는 종종 접음으로 사라진다.

통신에 올린 사건개요와 가해자 사과문 그리고 비대위 입장글 사이의 조희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들은 마치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되는 건
사건내용과 가해자의 입장밖에 없는 듯 행동한다.

'니네가 무슨 말 하는 지는 안 봐도 교과서다.' 라고 말한다.

'당신은 페미니스트군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게 아닌가요?'

따돌리기.

페미니즘 따돌리기.

옛날처럼 '입닥쳐!'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에...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라리, 입 닥치라고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질러라.

모르는 척, 아닌 척, 관심은 척 하지 말고.

■ monologue 2

많은 것이 정상화되어 간다.

이성애적 결혼이 정상화되었듯이 이성애적 연애가 정상화되었다.

대학은 연애의 품결이다.

이제, 더 이상 '무식한' 성폭력은 거지르지 않기로 한 듯하다.

그들은, 이제 '연애'라는 새로운 것으로 무기를 바꿔 들었다.

그리고 말한다.

"이건 정말 '사적인' 거니까 시비 걸지마!"

"봐, 이자도 즐기고 있잖아."

■ monologue 3

모든 것이 정상인데, 나만 미쳐가나보다.

나는, 모든 것이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그들은 말한다.

"이제 좀 괜찮지 않아?"

그들은 이제 '여성'은 없다고 말한다.

이제는 여성도 '인간'이라고 말이다.

그리곤 한 마디 덧붙인다.

"그러니까 엄살 그만 부려."

1. 역전패(逆戰敗) ?!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

더 이상 성폭력사건의 공개가 공동체에 위기의식을 주지 않는 현상.

각각의 남성들이 자신과 가해자를 더욱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현상.

이제 냉정히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선들.

언제부터, 그렇게 여유있게 된 걸까?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된 걸까?

성폭력 개념이 무엇인지,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무엇인지, 사건공개 의의가 무엇인지 한두 마디쯤은 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나아가 여성주의자들의 얘기를 주르륵 늘어놓을 수도 있는 소위 '진보적인' 남성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호적인 동지들?

아니면 언제 발동 찍을지 모르는 '밀어야 하는' 도끼?

혹은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경계하면 되는 대상?

단적으로 100인위에서 공개한 운동권 성폭력 사례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남성들이 여성의 언어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니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여성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지식 삼아, 무기 삼아 폭력을 휘두른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페미니즘이 이제 '권력'을 가졌다고 말한다.

성폭력을 무기 삼아 가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고 다른 남성들까지 위협한다고.

새터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고, 신입생 남학생들을 겁먹게 한다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성들은 더욱 세련되게, 더욱 점잖게 피해간다. 절대 목소리 높여 싸우지 않는다.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타협하여 자신의 정치적 진보성을 획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편하다는 것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가해자와, 남성집단과 분리시킨다.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여성 역시 '개인'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아니 이미 되었다고 넌지시 말한다.

성폭력사건을 논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온건슬쩍 넘어가고

그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아예 생각조차 않는다.

이제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 '권력'의 대부분이 젠더, 섹슈얼리티, 남성문화의 구조 속에서 파생된

'남성적인' 권력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마치 어디에선가 뚝 떨어진 듯한 그 말. 권력.

우리는 과연, 생략된 '남성'이란 말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 걸까?

2. 어떻게 된 걸까?

사실, 문제가 너무도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남성들이 '세련된'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피해 가는 혹은 공격하는 방법과 언어들

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소수의 점잖은 부류들은 대다수의 마초들과 견고한 동맹 관계 하에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말솜씨로 마초들의 노골적인 폭력성을 살짝 덮어주기까지 하는 매우 친밀한 사이라는 것은 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의 말을 적당히 경청하는 (척) 하는 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아니, 물론 싸울 수는 있다. 단지 내가 히스테리컬한, 피해의식에 가득 찬, 남성을 믿지 못하는 신경증 환자로 낙인찍힐 뿐이다. 그리고 그 시시콜콜한 시비를 점잖게 받아주고 있는 상대방은 예의바르고, 관용 할 줄 아는 점잖은 남성이 될 뿐이다.

편한 각본이다. 어쩌면, 저놈이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여유를 부린 게 아닐까 싶으리만치.

왜 이렇게 된 걸까?

사실, 글을 쓰는 나 역시 정리된 원인분석 같은 것을 할 역량은 못 된다. 여전히도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들만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부족한 부분들은 한/편에 오는 많은 여성주의자들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면서 얘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남성의 한계' 혹은 '남성의 대응전략'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라고 말해 왔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했고 사건공개 전략도 취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에 의해 삭제되고 변형되어 왔던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여성의 목소리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흡수한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말해 보라'고 하며 결국엔 그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과민하고 공격적인 여자로 몰아세우기, 판단력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기, 혹은 페미니스트의 설득에 넘어가 (이용 당하는) 순진한/바보같은 여자애로 치부하기 등 방법도 다양하다.

나는 과연 그들이 여성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존재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의 한계가 지워질 수 있는 걸까?

그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을 모두 극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기존의 젠더/섹슈얼리티 구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교묘하게 취하는 전략이 있기에 나는 더 분노하게 된다.

'좋은 남성 되기'가 그것이다. 적당히 들어주기, 혹은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사라지기, 그리고 그들만의 공간에서 계속되는 성폭력적 행위들. 남성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전략. 혹은 나아가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피해자를 바보로 만드는 행동들. 심지어 여성의 언어를 흡수하여 자신의 권력자원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들.

과연 그들에게 여성의 목소리를 표출한 것이 잘 선택한 것인지마저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

문제는, 이런 고착상태에서 어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그런 '세련된'마저 구사할 줄 모르는 가해자와 남성들이 대다수임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볍게 넘길 수도 없다.

불행히도 성폭력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똑같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강간이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별로 저항하지 않기에 좋아하고 있는 거라 판단했다.’

‘좋아하는데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안 되나요? 꼭 휴학하고 재교육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개실명은 저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끝도 없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 남성 중심적 언어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입 닥치고 있어 주는 게 어딜까’라든지 ‘어차피 남성들에게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 더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더 불쾌하고 의심스럽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역시 페미니즘에 대한 경계선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듯하다. 물론 항상 경계선들은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과거의 경계지점들이 (노골적인 형태든 세련된 형태든) 치열한 싸움과 논쟁이 오가는 동적인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선’으로 정제되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선 너머 저편에는 ‘페미니즘 사절합니다’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듯하다.

고착상태.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가?

3. 페미니즘 내부의 이야기들.

그들은 그렇다고 치자.⁴¹⁾

그러다면, 페미니즘 내부는 문제 없는가?

우리는, 농친 부분 혹은 조금씩 놓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가?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너무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오히려 반성폭력운동이 확장되고 안정되어 가는 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운동의 정체기와 내부적 혼란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분명, 과거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는 대중적 활동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학칙이 마무리된 캠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를 내부에서 더 이상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쌓인 성과들을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다고 말할 수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 사건공개, 학칙제정 등 여전히 눈앞의 과제들이 쌓여있고 이것들을 제대로 풀어내고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의 껍데기들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41)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응방식은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기를 제안한다.

그러나, 쌓여진 성과물들이 우리를 내부에서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사건공개에 대해 과거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다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는 걸까? 한편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 걸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 걸까?

예를 들어 보자. 사건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정말 공격의 지점들이 많다. ‘실명사과자보’라는 방식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에서 선정적인 운동방식이라는 비판까지, 혹은 법적으로 정당화 불가능한 자의적 기준이라는 비판까지 복잡한 온갖 비판들이 쏟아져 나온다.

우리는 논의를 좀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가닥들로 풀어나가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원칙적으로 옳다’라는 강변이 더 이상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설득력 있는 말이 되지 못할 때.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건공개가 전략의 하나로 제시된 맥락이라든지, 지금의 시점에서 사건공개가 대중들에게 읽혀지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남겨지는 것들.....

또 하나 얘기해 보자.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읽혀지는 방식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겨운 줄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 그 한계적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일까라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성적자기결정권’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근대적인 개인주의 틀거리에 회색되고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신체에 대한 권리, 성에 대한 결정권 등으로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이 풀려지고 이해되는 현상.

예초에 우리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여성의 성적 권리/주체성을 말하기 위해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언어를 만들어냈었다. 그러나 논쟁의 구도는 점점 개인과 권력의 문제로 확장되고/회색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느낄 수 있는 피해’를 말하는 것에 소홀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⁴²⁾ 물론, 래디컬 페미니즘의 집단적인 문제의식을 개인주의적 언어와 섞어서 풀어내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전략적인 측면이 강했을 것이다. 남성들에게 아무리 남성문화, 남성성, 남성의 섹슈얼리티 등을 얘기해도 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되려 화를 내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칙이나 내규 등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폭력을 권력-개인의 문제로 점점 추상화시키는 논의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남성의 집단성 그리고 여성의 집단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폭력적이고 한편으로는 무식한 얘기처럼 읽혀지기 시작했다.

여성들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척,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결국 ‘남성과 대등한 주체인 여성’이 그런 상황조차 통제하지 못하느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여성’의 목소리를 날카롭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42)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판단인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많은 반박과 조언들이 제시되기를 바라며, 글을 계속 씁니다. -.-

그들의 이치에 맞게, 그들의 논리에 맞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것은 전략적으로 물론 필요하지만 그
 란에도 불구하고 결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여성’으로 여성의 삶과 여성들의 문화 그리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파위쫈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여성의 공간을 넓혀가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반성폭력
 운동의 큰 흐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덧붙여

사실 성폭력의 개념이라든지 사건해결의 원칙, 피해자 중심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여성 주체성 등에
 관한 언어들이 시간이 지나올수록 정체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오래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즉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3-4
 년의 거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활동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어려움이나 혼란, 무기력을 느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성폭력’이라 느껴지는 상황들은 너무도 많은데, 그리고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
 는데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단적으로 말해 학칙으로 신고하거나 비대위를 소집하기에는 무리지만 자신이 느끼기에는 너무도 불
 편한, 그러나 불편하다 말하는 것조차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다. 어쩌면 그것은 남성과의 관계를 속
 서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여성의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 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괴로운.

새삼 연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많은 여학우들은 어디로 갔을까...

모두들 앞으로의 단란한 가정을 위해, 남성과의 연애전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페미니스트는 결혼에 반대하지만 대중운동으로 결혼폐지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애근절운동(!)도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과 연애의 경험 그리고 성폭력의 경험이 끊임없이 뒤섞이고 있는 여성의 삶에 대
 해서 뭐라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여성’ 공간을 사고한다

the 2nd term

■ 1

가해자는 적당히 세련되었다. 어디까지 합의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 설명공개사과는 이제 그들의
 자원으로, 그들의 변죄부로 전유되려 한다. 담론의 중심이 집단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으로 넘어간 현
 시점에서 다시 여성의 집단성을 말하는 것은 촌스러워 보인다?! 그런가? 당신들도 그러한가? 낭만적
 자태에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즘의 유물인가?

일군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하의 거친 글은 기존의 피해자 담론 속에서 관성적으로 규정되어온 피
 해자의 정체성을 새로이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제법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는 가해
 자와 적당히 사건을 객관화하여 도의적인 잣대를 들이밀줄 아는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병
 행되었으며, 그럼에 앞서의 정세인식에서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반성폭력 운동의 출구는 어디인
 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현시기 반성폭력 운동을 진단하는 지난한 논의의 화두가 되
 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기존의 피해자 담론이 사건 해결에 있어 전략적으로 유용한 기제임은 여전
 히 자명한 사실이지만, 단순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피해자 규정을 넘어 피해자 ‘여성’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가운데 여성집단의 집단적인 경험의 공유와 이를 역사화하는 작업이 운동의 자원으로, 힘
 으로 전화(轉化)하는 속에서 일련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함이 다음의 ‘여성공간’에 대한 논의가 된
 다.

■ 2

일견 분리주의를 참칭하는 듯한 이 논의는 언젠고 보편성에의 편재가 여성의 능동성(차이와 역사성)
 을 무화시켜 왔음에도 공존을 이야기하는 언설속에서 계속해서 파당성과 정치성 사이에서 투쟁해야
 만 했다. 더불어 실체없는 그놈의 평등과 공생을 기만적으로 강조해대는 그들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
 들이 남성과의 관계맺기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처벌’을 가하는 주도면밀함도
 잊지 않는다. 그들의 법을 위반하는 여성의 경우 적절한 대미지가 제공되며, 계속해서 여성의 적은
 여성들이 보다 밀접히 관계맺는 여성임을 강조하는 속에 대상 여성과의 차별화를 통해 ‘나’는 아니라
 는 확인과 자기검열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남성의 시선을 내면화한 채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여성들
 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근대적인 공/사의 이분법은 공적 영역을 주도하고, 자연발생적인 듯 군집(개떼)을 형성해 온 남
 성그룹(사우나 문화나 군바리 문화등이 이 집단의 강력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거의 선천적 우월성을 부여하며 여성집단의 경험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것인가하는 것을 수다한 예를
 들어가며 증명하는데에 주력한다. 여기에서 ‘여성정체화된 여성’임을 노정하는 것, 여성경험을 발화하
 고, 여성과의 유대를 확인하는 일 따위는 열등함의 반증에 다름 아니다.

■ 3

“나는 한번도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에서 여자라는 거 티내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여러분도 남학생들 못지 않게 열심히 공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자니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 관악 법대 여학생 신문 「불복거울」 박선영 강사의 인터뷰에서...

힘이 될 수 없는 집단의 경험.

이것은 나아가 여성성의 거세를 통해 명예남성화하여 남성 집단에 편입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의 생존을 위해 보다 나은 전략임을 암시한다. 명예남성화는 남성지배문화 안에서 색수열한 코드화하는 '여성' 정체성을 비싸게 지불하고 그 대가로 공적 영역에서의 비교적 안정적 정체성을 지급받는 기제가 된다.

이와같이 재생산 자원으로서 이성애적 결혼에 '사용'될 젊은 여성들의 집단 형성은 비생산적인 것, 어쩌면 '적들과의 연대'에 다름 아니기에 남성집단에서의 편입, 혹은 보다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남성과의 관계맺기는 여성들의 자의적인 선택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포장된다. 여성들이 이러한 유희와 구라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지는 것은 언제인가? 채수없게 말해서 재생산 자원인 자궁이 그 소임을 다 해낸 후이다. 근래에 새롭게 조망되고 있는 '아줌마' 집단의 힘, 소위 여성 '이후'의 존재들이 되는 그들이다. 제길...

■ 4

우리는 여기서 이성의 지배와 계몽적 사유의 전횡에 맞서 유토피아적 대안을 구현하는 여성적 원리, 그 자체로 충족적이며, 결핍이 결여되어있는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완전한 '여성', 앞서의 '자매애'를 요체로 하는 여성집단을 제의적으로 말하는 대신, 힘이 되는 집단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여성공간을 이야기하기 위해 '여성공간', '여성집단'이라는 추상적 범주에 경계를 긋는 작업을 선택과 제로 삼기로 했다. 단일한 억압에 놓인, 단일한 해방을 기획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의 '여성'이 아닌 다중의 정체성을 발화하는 '여성집단'을 환기하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에 여성집단의 경험을 중심으로 놓는 대중심화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공간, 여성집단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왜 연대가 힘이 드는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며, 여성이라는 성별적 정체성이 여성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민하고자 한다. 여성들간의 차이는 밀렛의 단언처럼 너무도 명료하게 일시적이며, 환상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백인 페미니즘의 공통된 자매애가 경험적으로 이미 허구로 입증된 지금, 추상적인 자매애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주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는 대신 다음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억압에서 여성들의 성별 정치학과 여성들이 갖는 다중적인 정체성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후의 정치학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여성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는 예외없이 여성이 남성과의 실제적·이상적 관계속에서 혹은 가치관계 속에서만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시한다. 아무도 여성이 독자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결론은 여성이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 그래, 우리는 그들이 규정하는 '무엇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하기에 '무엇이나' 될 수 있다.

■ 5 보론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성이라는 집단이 존재함을 보여라!!

• 하나. 여학생 새터를 위시한 지속적인 여성 모임

새내기 시절 모든 남자 선배들의 관심과 환영(지속적인 껌딱임과 사이즈 재단이겠지)을 받던 나는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기억되고, 분류되었는데 그들의 호기심이 식어감에 따라 1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학생사회에서 발붙일 곳을 잃고 부유한다. 여자선배들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에 있는가? 대학에서 관계맺기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중의 하나가 이처럼 일반에서 여자 선후배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서로 친해질 기회도 없을뿐더러 친해질 기회조차 없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는 채념하고, 대개의 그들은 그들의 여자선배들처럼 사라진다.

아직 대학에서 성별화된 문제들을 직접 인식하지 못한 새내기 여학생들에게 인간관계의 기초를 마련 해두고, 여성집단이 실재하며, 언제든 와서 등을 기댈 수 있음을 보여주자. 치마를 입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공간, 수다가 즐거운 공간, 성폭력의 경험이 나에게 비난으로 돌아오지 않는 공간. 나는, 여/성이다.

• 하나. 새롭게 놀아보기

주지하다시피 놀이문화는 남성지배문화의 전형이다, 여성성예의 처벌을 통해 남성성을 획득하는 장소이다. 왜 우리는 그들만큼 유쾌하지 않은가?

만지를 걸자. 나는, 우리는 유쾌하지 않다. 그따위 섹스를 온유하는 게임들에, 여성을 비하하는 노래들에 하나도 즐겁지 않노라고. 새로운, 대안적인 놀이문화를 실험해보자. 그 속에서 거칠게 냉소하며, 전복을 꿈꾸자.

기간 대학내 여운단위에서 진행한 여학생 체육대회나 여성문화축제등은 이러한 여성적 놀이문화의 다양한 실험들을 담지하고 있다.

• 하나. 매체를 통해 말하기

고대 석순, 이화의 3차성징, 연대 투입술, 성대 정정현, 동국 총여신문, 관악 여학생 신문,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 경희 달해의 소식지등이 그것이다. '여성'임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언어를 갖지 못했다. 여성주의 매체를 통해 여성의 언어로 '우리'를 말해보자.

♀ 공동체 Program 소개

바이러스팀과 함께 Shake your body!

여성연대한판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여성주의자들과의 만남이 아닐까요. 처음 만나는 이들과도 북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와중에 느껴지는 우리만의, 여성들의 유대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분명 즐겁고 멋진 경험일 겁니다.

이번 2001년 여성연대한판기간에 바이러스팀은, 이렇게 새로운 여성주의자들을 만나고, 또 서로 알고 지내던 여성주의자들은 더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공동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몸으로 부대끼고 함께 땀흘리면서, 끈적해지는 모두의 몸보다 더 끈끈해질 우리만의 연대감을 확인해보시다.

마음껏 움직여보세요!
바이러스팀과 shake your body!

8월 10일

2시~4시 : 두레짜기, 몸으로 자기소개하기
4시~5시 : 몸으로 친해지기

8월 11일

5시~7시 : 파이팅! 여성주의 대 운동회
두레별 대항전 : 꼬마야, 꼬마야
 럼보게임
개인별 대항전 : 작용반작용
 자반뒤집기
 맘대로 놀아보자! : 고무줄놀이
 물총싸움

♀ 대학 여성운동 관련 정보들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하여

정보수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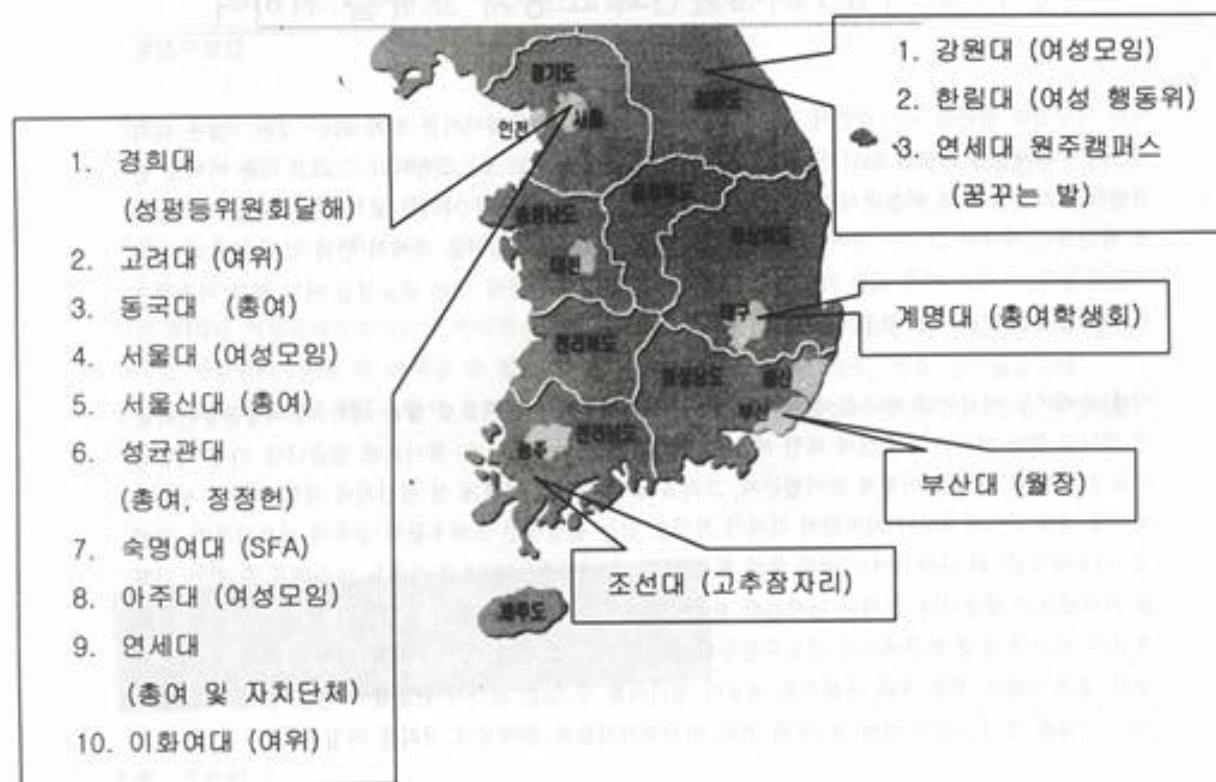
매년 여성연대 한판을 준비하면서 정보수집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많은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비슷한 고민과 아쉬움을 느껴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한 판이라는 자리를 통해 여성주의자들 간의 따로 또 같이 가는 연대의 자리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놓인 서로 다른 상황들 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와 노하우들의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습득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느껴왔음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이에 올해에도 여성연대 한판을 준비하는 정보수집팀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해소의 지점들을 (조약하게나마) 찾아보려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각자가 올 한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서로의 존재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들의 공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현재 대학 내 여성운동의 '흐름'까지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의 활동이었기에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판에서의 정보수집팀의 활동이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져 대학 내 여성운동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 나름으로 새로이 정리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며 올 한해 전국 여성주의자들의 한해살이 정리를 마칩니다.

올해 정보수집팀에서는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여성운동단위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초기에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특히 새로운 단위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자세히 각 단위들의 한해살이를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단위들이 어디에서, 서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활동들을 해왔는지 혹은 계획하고 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공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이지만 수많은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이 함께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단위 소개에는 자세한 연락처뿐만 아니라, 행사 후의 결과물-자료집, 책, 포스터 등-의 존재 여부까지도 세세하게 표기해보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위별로 어떤 행사들을 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어떠한지를 공유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형들 속에서 얻어낸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운동의 두께를 더욱 두텁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대학여성운동단위 지도



수도권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

#1 경희대학교 한의대 학생회 성평등위원회 달해

2000년에 한의대 여학생회가 성평등위원회로 거듭났습니다. 왜냐구요? 한의대내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학생회는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문제라 하면 성폭력(특히 강간)을 떠올리는데 성차별적 행동이나 말, 취업에 있어서의 성차별 등도 모두 성문제입니다. 게다가 한의대는 전통학문을 공부하는 곳으로서 성에 대한 보수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에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예를 들면 한의대 1학년은 '맹자'를 통해 한문을 익힙니다. 그 '맹자'에 주자가 주석을 달기를 '陽尊陰卑(양은 높고 음은 낮다)이니 마땅히 왕과 남편은 높이고 신하와 부인은 낮추어야 한다.'라 했습니다. 이런 음양에 대한 개념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구가 바로 성평등위원회입니다.

E-mail : ddalhae@hanmail.net, dalhaelove@hanmail.net

Tel : 02)961-9391

Community : www.freechal.com/medigender

■ 달해의 1년 나기 - 2001년 1학기 달해 사업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달해'라는 한달에 한번 내는 신문이 있다. 신문은 한의대내 성문제를 다루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1년에 한번 자료집을 발행, 신문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신입대상 세미나를 진행한다.

■ 신문은 한달에 한번 (전시)

- 3월 신문: 진로에 있어서의 성차별 1탄

4월 신문: 진로에 있어서의 성차별 2탄

5월 신문: 호외로 medigender란 이름으로 경희의료원 인턴 선발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다룸

■ 대동제

- 대동제 때 심리테스트를 구조물로 만들어 한의대 신문에 전시 (내용소개글)

■ 5월 메이데이 참여

- 女聲의 해소로 전야제에 참가하기만 했음

■ 5월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

- 00학번 위원이 출전했고 01학번 위원들이 자봉단으로 참가

■ 세미나 진행 (커리큘럼-언니네 한판 커뮤니티 자료실 참조)

#2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9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여위)입니다. 여학생위원회는 고려대학교 내에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하다'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동등한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보적

인 공간이라 말하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문화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여학우들은 소외되거나 배척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내에서 소수자로 존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mail : kufemi@korea.com

Tel : 02)3290-1844

■ 여위의 1년 나기

1학기 | •2월 새터

- 성교육 OX퀴즈와 성교육 영상물 상영, 강연회 등을 타 단대와 연합하여 준비.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업은 '새터 지킴이'였다. 새터 지킴이는 여위와 성폭력 관련 세미나를 하였고, 이후 새터에서 성폭력적 분위기에 문제 제기하거나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3월 8일 3·8 세계 여성의 날 교양학교 (자료집)

우리 엄마는 보험설계사, 우리 언니는 학습지 교사. 나는?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여성운동과 3·8 여성의 날의 의미, 현재의 여성 노동 운동의 상황과 비정규직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3월 마지막 주 성폭력 자보전

-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였다. 성폭력의 개념, 현재 형법상의 성폭력, 그리고 학칙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3차례에 걸쳐 자보를 냈다.

•4월 여위 회원제 매일 mail~!

- 여학생위원회 회원을 모집. 현재는 메일링 리스트와 비슷한 것으로 1주에 한번씩 메일을 보내고 있다. 보통 여학생위원회의 소식과 현재 여성계의 정점 사안들에 대한 정보, 여위의 입장 등을 메일로 보낸다. 회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고 앞으로 커뮤니티 등을 만들어 소통을 계속 할 예정이다.

•5월 1일 메이데이 교양학교 (자료집)

여성 비정규직화 철폐! 직장 내 가부장성 철폐!

- '노동 운동이 이야기 될 때 왜 항상 여성 노동자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자 속의 여성보다는 여성의 노동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6월~7월 19기 여성문제연구회 (커리, 초동모임 순서, 모집글)

너는 여름에 피서가? 난 여름엔 가!!

- 여성문제연구회는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서 방학 때 진행하는 여성학 세미나 프로그램. 기본적인 여성학에 대한 세미나와 좀 더 심화된 세미나, 이렇게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타학교의 관심 있는 학우들도 참여하고 있다.

2학기 | •9월 성폭력 관련 자보전

- 공개 예정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이나 화장실 성폭력 같이 '사소하다' 혹은 '성폭력이 아니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또, 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하여 학교와 논의하려 함.

•여성해방제 예정

- 여성해방제는 해마다 치루는 달력식 사업. 정해진 주제는 없고, 2~3일 정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행사이다. 작년은 여성 노동, 매매춘, 반성폭력학칙제정의 3가지를 주제로 잡아 3일 동안 진행되었다.

•12월 20기 여성문제연구회

- 여성학 세미나 프로그램 예정.

#3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동국대학교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가 거의 1:1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를 비롯 다른 단과대 학생회나 학생 복지실과 같은 곳은 여학생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생각하고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나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해보고자 총여학생회를 만들어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대처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15대 총여학생회는 동아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아내 다른 여성 연대 단위가 없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여학우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homepage : <http://dguchw.mytripod.co.kr>

■ 총여의 1년 나기

1학기 | •5월 색다른 성교육 주간 (자료집)

-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만들어 가야할 노력의 일환으로 5월에 색다른 성교육 주간을 마련. 민우회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실습위주의 강의-콘서트-워크숍,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에로틱존 찾기 등등-을 진행했다. 또한 상황에 맞는 호신술, 소리지르기과 같은 대응방법, 간단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였다.

•여성학 도서관

- 총여 내 페미니즘 관련 도서를 일반 학우들에게 대여. 이를 통해 여성학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동시에 대여하러 온 학우와의 소통을 통해 총여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자 하였다.

•여학생 휴게실 수다관

- 동아 내 총여를 제외하고는 다른 여학우 중심 단위가 없기에 여학우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내 3개의 여휴에 수다관이라는 게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총여학생회의 행사나, 여성관련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학우들이 참여에 바라는 점을 적는 공간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생겨날 수 있게 하는 공간도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역사기행

- 허난설헌과 신사임당 생가 등을 둘러보고, 왜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여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

2학기 | •학칙을 위한 공청회

- 1학기에 학칙이 제정되었지만, 일반 학우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피해자중심주의와 같은 학칙의 개념들에 대해 잘 모른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학칙을 제대로 적용하여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제

- 주제는 반성폭력으로 잡고 있다. 가장 큰 주제는 성. 응답패설과 같이 성이 더 이상 음지에서 얘기될 것이 아니라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인식시키고자한다.

#4 서울대학교 관악여성모임

이름 그대로 관악의 여성모임들이 모여서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96년에 준비모임이 꾸려져서 활동하다가 97년에 공식적으로 관악여모로 활동을 시작, 현재까지 관악에서 여성주의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방식 및 사업 방식에서 공동의 논의, 공동의 의사결정, 공동의 노가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자들은 단대 활동 주체들과 여모 집행부, 총학 성정치위 등입니다. 현재는 인문대여성모임연대, 사회대여성주의모임연대, 자연대여성주의자연대, 법대여성모임연대테이블, 동인 여성운동체 언니네, 총학 성정치위원회, 공대여성위원회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관악 여성모임연대의 1년 나기

•2001년 1학기 생리대자판기 확대설치사업

- 서울대 생협 학생위원회 및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와 연대하여 학내 생리대자판기 확대설치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월경 및 생리대자판기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자보선전을 실시, 학내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한편 생활복지조합과의 논의를 거쳐 자판기 확대설치의 약속을 받았다.

•4월 여성노동워크샵

- 학내 여운 단위들에서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시기를 맞아, 여성운동에 있어 여성노동운동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공유해보자는 목적으로 워크샵을 개최. 여성 노동의 성격, 모성 보호, 여성노동과 섹슈얼리티 등의 소주제를 가진 자료집을 제작. (자료집)

•5월 모성보호법 투쟁 연대활동

- 모성보호법안 개정을 위한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던 당시의 흐름 속에서, 여성노동과 관련한 4월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모성권 확대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고자 했다. 모성보호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 근로기준법개악없는 모성보호법 강화를 주장하는 집회 등에 참여하였으며, 학내 외에서 자보 및 리플렛의 형식으로 모성권에 관한 선전을 진행.

•6월 관악여성주의자들의 밤

- 관악여성모임연대 홈커밍데이를 확장하는 형식으로, 관악에서 여성운동을 했던 선배들과 현재 각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초대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리를 가졌다. 20대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는 공통의 경험을 나누고,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관악의 여성운동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도 가졌다.

•7월 관악 기활학교

- 관악 내에 성매매에 관한 문제의식을 퍼뜨리고 여성모임 인자들과 더불어 학습할 목적으로 주1회씩 3주간에 걸쳐 성매매의 성격 및 실태/여성의 몸에 대한 정치학/성매매 특별법 등의 주제로 3회의 공개세미나 형태의 교양을 했다.

•8월 현재 '힘내라 여성운동' 준비중

- 학내 여성운동의 방향성 정립 및 통합력 확보를 목적으로, 각 단위 활동가와 새내기 여성주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자 함. 지난 한해의 관악 여성운동의 성과와 반성지점들을 정리하고, 반성폭력, 성매매, 여성노동 등의 주제로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한편, 서로에게 힘이 되는 놀이판 등을 기획, 준비중에 있음.

■ 인문대 여성모임연대의 1년 나기

•새내기 맞이 사업

- 새터 준비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인문대 여성모임 연대(이하 인연)' 주제가 참석,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합의하고, 각 과별로 교양 시간을 두어 구성원들 간의 '유효한' 합의 과정을 강제. 새터 프로그램 중에 여성 노동권에 대한 영상물('평화는 없다')을 상영.
- 새터 반성폭력 내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문대 학생회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여성흡연, 반성폭력 등의 주제를 다룬 인연 새터 자료집을 발간. 또 위의 주제로 '인연 자보전' 기획, 과 별로 새내기 교양 학교와 같은 위상의 성학교를 기획, 기초적인 페미니즘 세미나, 영화 함께 보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료집)

•대동제

- 관악여모가 주도한 '관악 철쭉 아가씨 선발 대회' 반대 시위에 결함. '미인대회 반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자보를 붙였고, 대동제 단대관에서 안티미스코리아 퍼포먼스를 하였다.

•인연 기활 세미나

- 기활을 알려 뵈고 동시에, 성매매&섹슈얼리티 세미나를 인연 차원에서 기획. 3term으로 잡힌 세미나가 끝나가고 있고, 인연 2학기 활동을 계획 중.

■ 사회대 여성주의모임연대의 1년 나기

■ 새내기맞이 사업

- 사연(준)과 사회대 학생회 성정치국, 그리고 각 과 주체들과 함께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각 과별 교양과 '반성폭력 내규 지침이 선언'을 통해 내규를 알려내고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새터기간 중 따로 모니터링 요원을 두어 성폭력 예방/대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연(준) 명의로 성폭력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였고, 새터 장소 곳곳에 그림자보와 조형물을 전시하였다.

■ 안티 철쭉 아가씨

- 관악여모의 주도로, 관악구청이 주관하는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를 반대하는 집회 조직.

■ 페미니즘 문화제 '선수, 작업 들어가다'

- 그동안 2학기 때 했던 문화제를 1학기로 앞당겨 대동제 기간에 개최. 제3회 페미니즘 문화제 '선수, 작업 들어가다'를 통해 연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

■ 법대 여성주의연대테이블의 1년 나기

■ 1월 법대 여성주의 연대테이블(이하, 여불) 건설

- 2000년 선거 때 제안되었던 법대 여성주의 연대테이블이 겨울방학 중에 건설. 법대 여성국, 여성주의 자치단위들, 각 반 책임자 혹은 개인자격으로 들어오는 여성주의 활동가 등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법대에 흩어져 있던 여성주의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 2월 선배학교(2월 6일)

- 신입생환영기간에 드러나는 남성중심적인 모습들에 대한 문제제기, 뒤풀이자리의 술문화, 신입생여학우를 둘러싸고 온라인의 익명게시판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품평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나누어 발제하고 함께 이야기하였다.

■ 3월 법대 여학생새터 여/우/야(女/友/夜)개최(3월 3, 4일)

- 법대에서는 처음으로 신입생 여학우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학생새터를 기획. 여학우들 간에 끈 만들기, 여성주의적인 문화를 담은 여성들만의 공간 만들기가 기획 의도.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기소개하기, 몸을 움직이는 게임, 수다떨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3월 말 생리대 자판기 설치 서명운동

- 생리대 자판기가 없는 법대 현실에 문제제기하고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패관 때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 5, 6월 법대 여학생신문 <불복거울> 발간(5월 23일 1호, 6월 5일 2호 발간)

- 신문모임이 꾸러지고 법대 여학생신문이 발간되었다. <불복거울>은 1호 화장실, 2호 방학 특집으로 두 번 발간.

■ 5월 중순 여학생실 꾸미기 사업

- 힘들게 마련한 법대 여학생 휴게실은 몇 년 전부터 제 구실을 못하고 방치되어왔다. 여학생들이 공유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여학생실 내부를 정리, 의미를 새로이 부여하는 일을 시작. '여학생실 꾸미기 팀'이 꾸러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벽화를 그려 놓고 컴퓨터를 들여놓는 작업까지 진행.

■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의 1년 나기

■ 1월 여성주의 plus 학생회 워크샵 준비

- 여성주의 학생회의 문제 의식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의 위치에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자리. 하지만 방중으로 예정되었던 워크샵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다.

■ 3월 신입생 환영회 — '성, 알거 다 안다구? ...선수도 모르는 것!' 강연회

- 스스로 정확하게 성에 대해 알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몸을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타인의 몸을 착취하지 않는 것,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안전하게 성을 누리기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주최. <성욕 긍정하기>, <피임>, <성적 의사소통>의 3팀으로 진행되었고,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강연. 강연회를 통해 상담소의 존재를 알려내기도.

■ 4월 여성노동워크샵을 열다

- 메이데이를 기회로 여성운동에서의 여성노동운동의 의미를 찾아보고 활동가들간의 관점 정립과 공유 그리고 이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관악여모의 여성 노동 1팀의 구성 단위로 워크샵을 준비. 발행한 자료집을 토대로 진행.

■ 5월 대동제—'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화를 말한다' 강연회

- 5월 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기존 민족민주 진영의 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 평화를 군사주의와 폭력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강연. 페미니즘에 대한 개론 수준 강의부터 군사주의에 대한 개관, 평화 운동 개념에 대한 내용 제시로 실시되었다.

■ 여름 관악여모 활동에 결합 ...지금은 힘내라 여성운동 준비중

■ 자연대 여성모임의 1년 나기

■ 제 3회 자연대 페미니즘 문화제 "이름 전에 죽은 그녀와의 채팅"

-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성이 커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선정한 화제.

1>거리전 —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 사이버 포르노, 게임방 문화,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여성 커뮤니티에 대해서

2>강연회 — 5월 16일

- 여성과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 달나라 팔세포 신딸기와 함께 이야기

3>영화제 — 5월 15일, 17일

- 15일(화) : 글로리아 두케
- 17일(목) : 애타게 수잔을 찾아서

#5 서울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

대학은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우리 여성들이 피부로 가장 쉽게 느끼는 사회적, 사적 차별이 대학 내에서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서부터 대학 내 놀이 문화 등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총여학생회입니다. 우리의 권리 찾기는 그 누구도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의 생활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찾고, 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12대 총여학생회에서는 근시안적인 해결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점진적인 모습으로 여학우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mail : stuwsb@hanmail.net

Community : www.freechal.com/12wsb

■ 총여의 1년 나기

• 2월

- 새내기 새로 배움터 준비(새터 자료집 제작, 새내기 성의식 설문 조사)

• 3월

- 3·8여성의 날 기획 대자보
- 재학생 성의식 설문 조사

• 4월

- 아리랑지1호 발간
- 성폭력에 관한 설문 조사 및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관한 설문조사, 축제 관련 설문 조사
- 성 관련 강연회

• 5월

- 성폭력에 관해 기획 대자보와 설문 조사,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관한 설문조사
- 서울신대 학칙 가안에 대해 총여학생회 리플 달아 제출
- 대동제

• 7, 8월 방학

-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논의 자리 마련 진행 중

• 9월

- 성폭력에 관해 기획 대자보, 관련 강연회
- 아리랑지 2호 발간

• 10월

- 성폭력에 관해 기획 대자보
- 아리랑지 3호 발간
- 여성의 주간

• 11월

- '여성의 소리' 발간

#6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편집위원회

■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17대 womv/를 총여학생회입니다.

대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 총여학생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대학에서도 여성이 차별 받는 현상은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묻히고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학 4년을 마지막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그 4년 간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의 변화가 사회로 파급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E-mail : womtm@freechal.com

Tel : 02)760-1430

■ 총여의 1년 나기

• 2월 여학우 새로 배움터 (2/17~18)

- 새내기 여학우들과 함께 여성을 알아가는 편견을 벗고 여성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 이를 통해 나를 찾아가기 위한 행사. 여성주의 교지 편집위원회 정정현과 함께 준비.
- 내용 17일: 여성주의 노래 배우기/성문화 강연회(강사:여성민주회)
역할극/반성폭력 학칙 설명회
18일: 체육대회(고무줄, 제기차기, 공기, 농구)

• 2월 새터

- 01학번 남녀 새내기들과 함께, 새내기들에게 총여를 소개하면서 새터 성폭력 내규의 교양과 학내 성폭력 학칙에 대한 교양을 하였다.

• 3월 여성의 몸 바로알기 "낯선하면 고맙나, 이눔아?" (3/20~21)

- 유지태의 "낯선하면 고맙나, 이눔아?"라는 멘트로 일촉즉발이 여성의 몸은 남성의 시선에 의해 규격화되고 통제되었다. '여성의 몸 바로알기' 행사는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 일정 20일: 거리전. 왜곡된 여성의 모습 vs. 현실 그대로의 여성
(매체 속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왜곡된 여성의 모습과 주변 여성들의 모습)
21일: 성문화강연회
(강사:권김현영/순결이태올로지, 다이어트의 이름으로 억압된 여성의 몸)

• 5월 제8회 여성 현실제-추락하는 것엔 자궁이 있다?! (5/15~17)

- 여성현실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사. 올해는 IMF이후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정리해고 1순위가 되는 여성의 노동 현실, 그리고 모성보호 법안의 개악이라는 현실을 학내에서 풀어내고자 하였다. 법대 여성학회와 함께 준비.
- 일정 9~10일: 사전 행사로 여성 노동 다큐인 '평화란 없다' 비디오 상영.
15일: 개막제: 박터트리기풍물패 길놀이
(여성 노동에 관한 구호를 담은 박을 터트리며 그 의미를 새로이 느껴보는 자리)

16일: 강연회: 여성 노동의 현실과 모성보호법 /강사: 전국 여성 노조
17일: 폐막제: 여성 노동 문화제/전국 여성 노조와 함께 하는 연대 주점
나눔동안 주욱: 거리전/배지 판매

•그리고 한학기동안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강철구 공대위 결합
/농활대 현장활동 내규 교양 등을 하였다.

■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편집위원회

저희는 올해로 30번째 <정정현> 발간을 기획하고 있는 정정현 편집위원회입니다. 정정현 편집위원회는 독자적인 학내 언론기구로서 여성주의 교지를 제작·발간합니다. 사회현상, 가부장적 자본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공부하고 그에 기반하여 여성주의 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1년에 한번 <정정현>을 발간하며 학내에 머물지 않고 on-line상에서의 페미니스트들의 연대와 여성주의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웹진 <小心> (<http://sosim.jinbo.net>)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와 연대하여 학내 행사를 기획해왔으며 외부 전성성노예 (군위안부할머니) 반대활동과 기지촌활동 등 사회단체와 연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01년의 정정현 편집실의 활동은 총여와 함께 진행한 여학우 새로 배움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정현 편집실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 신설된 여성학 연계전공을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관련 교수님들과 전공자들이 참가하는 '여성학 연계전공 자리잡기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제 30호를 발간할 예정이며 학사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시기를 타고 여성학 연계전공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7 숙명여자대학교 여성학 동아리(S.F.A : Sookmyung Feminists Association)

여성학동아리 S.F.A는 여성해방과 여남평등의 실현을 위해 1997년 창동되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여성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00년 'S.F.A 여성 영화제'에 이어 2001년 '이젠 같이 즐겁고 싶다-이.즐.다.'라는 이름으로 피임 기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전시물 전시) S.F.A는 현재 2기와 3기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주 2회, 방학중에는 주 1회의 세미나와 전체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페미니즘의 종류와 각각의 운동양상에 대해 조사해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숙명 여대 내에서 여성학 팔로키움이 개최될 때는 동아리 전원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 011-9754-7501, redgirl7907@hanmail.net
community : cafe.daum.net/sfa

#8 아주대 여성 모임 (가칭) 소개

아주대 여성 모임은 아주대학교 내에 여대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모임입니다. 학내에서 여대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 함께 고민해 보고,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대졸 여성의 사회진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져있음을 여대생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여겨 대

졸 여성 사회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적/집단적 지원을 하고자 본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이에 대한 능동적 태세를 고취시켜 여대생들의 여성 의식을 고취시키고, 활발한 진로모색의 기반을 제공하며, 여성 우호적(women-supportive) 환경을 조성하여 긍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 모임의 목표입니다.

이선이 선생님 ▶ 031-219-2780 sunlee@madang.auou.ac.kr

신한나 ▶ 016-392-9593 hanna98@hanmail.net

community : www.freechal.com/thurskids

■ 여모의 1년 나기

주별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조모임(사랑방) 및 직업 탐색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로 특강, 취업 준비 워크샵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방 모임

- 정기적으로 모여 성, 사랑, 연애와 같은 개인적인 주제에서부터 미래의 여성상, 직업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sisterhood를 나누려고 하였다.

•사회진출 여동문과 만나기 (정기 직업 탐색 워크샵)

- 사회진출 여동문을 초빙해 유망직업 탐색 및 정보 교환을 하고, role model의 하나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여대생들의 진취적/적극적 태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

•진로 탐색 특강

- 직업 세계의 최근 동향 및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진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유도하고자 한 학기에 한 회씩 특강을 준비.

•취업 준비 워크샵

-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진출 노력 유도를 위한 취업 준비 워크샵을 준비.

#9 연세대학교 자치단체와 총여학생회

>> 여성자치단체 소개

■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beyond는 97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준비하면서 모인 사람들을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넘어서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화장'과 '포르노'에 관한 두번의 포럼을 개최했고 98년에는 '성폭력 자치규약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올해에는 '성폭력 자치규약 자료집'을 버전업했습니다. (책자전시)

community : www.freechal.com/beyond

■ 두입술

두입술은 학내 여성자치언론입니다. 우리는 단지 유행처럼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여성문제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서의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그 곳에서 우리의 두 입술을 열려고 합니다. 침묵에서 소통으로, 그

리고 자기 것이 아닌 언어에 대한 반역으로 우리의 두입술은 계속 나뉠 것입니다. 4월에 제5호 "여학우 길찾기/자리잡기"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전시 : zzanggaa@dreamwiz.com(짱가)입니다.

community : www.unninet.co.kr에서 두입술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 문대 여성주의자모임 모반

모반은 문과대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자치단체입니다. 모든 가부장제에 반대하며 현재의 남성중심의 사회에 謀反을 꾀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곳이지요. 여성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지만 남성위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문과대학의 특수한 현실에서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모반에서는 '땀! 문.여.사(문대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했고 3월 29일에는 성교육 행사 '진수성찬'을 문대 학우들과 함께 했습니다. (소식지전시)

community : www.freechal.com/movan

■ 여성주의 Hip-Hop 공동체 I WILL

I WILL은 여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억압적인 시선들에 대한 반기를 춤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춤추는 여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기적인 연습과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Hip-Hop과 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I WILLER가 될 충분한 자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I WILLER와 함께 당신의 몸을 해방시켜 보세요...^^

community : http://www.freechal.com/iwill

■ 의대 여성모임 wicca

wicca는 마녀라는 뜻이지요. 중세 마녀 재판 희생자들 중에는 약초와 병에 관한 지식이 많았던 여성들이 많았답니다. 요새로 치자면 의의사들입니다. wicca는 의대 내의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대부분 '그럴 수 있지.'하고 넘어가는 일상을 낱알이 해부하고 이를 다시 여성주의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의사 사회, 의료계 내의 가부장성을 바그러드리고 여성 건강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당찬 꿈도 꾸답니다.

레드 ▶ 011-9618-3901, redbaba@hanmail.net

■ 페미니리

여성학자치도서관 Feminary는 98년도에 생긴 총여학생회 산하의 여성학 생활도서관에서 2000년에 학생 자치 도서관으로 거듭나 학내/학외 여성운동의 결과물들을 모으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Feminary는 230여권의 비교적 최신의 여성학 관련 단행본과 여성주의 정기간행물을 가지고 있으며 2001년 현재 각종 여성문제와 관련된 문서 파일들을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본격

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마다 1회 또는 2회 여성학 관련 신간이나 새로운 커리 개발 정보가 담긴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3월 27일 새내기맞이 특별 기획 세미나 "핑클과 여성성"을 마쳤구요, 여성학 관련 자료분류목록을 완성해가고 있고 여성학 수업에 필요한 자료도 따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homepage : http://suny.yonsei.ac.kr/~feminary

■ 여성주의 밴드 AZAC

AZAC은 2000년도에 결성된 새내기 밴드입니다. "여자애들한테는 키보드나 안겨주면 그만이지."라는 말들이 아직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AZAC은 여성들만으로도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며 여성들의 능력에 대한 편견들을 아작 내버리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여성 뮤지션들의 곡들을 발굴해서 즐겁게 불러제끼는 것, 그것이 바로 AZAC의 공연입니다.

community : www.freechal.com/azac

E-mail : siva99@freechal.com

>> 총여학생회 소개

■ 별/수/있다 제 13대 총여학생회 소개

"다시 태어나면 여자나 남자, 뭘로 태어나고 싶어?"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에 선뜻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라고 말하는 여학우가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이 '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여학우들은 이미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이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 여성들의 소리 없는 외침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의 외침들을 밖으로 꺼내어 속 시원히 이야기 해봅시다. '여자가 별 수 없지'가 아니라 여자라서 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여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즐거운 세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여학생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E-mail : ysfem@yonsei.ac.kr

Tel : 02)2123-3645

homepage : www.ysfem.or.kr

■ 총여의 1년 니기

1학기 | ▶2월 14일 신입생맞이 OT 행사 "상 알고 있니? 알고 싶지?"

-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받아왔던 생물학적인 차원의 성교육이 아닌, 구체적인 실제적인 성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사회에서의 남녀 관계에 대한 강연을 이숙경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성교육 영상물을 상영했다. (자료집)

▶2월 새터 반성폭력대규 전달, 성교육 영상물 제작

- 2000년도에 마련된 새터 반성폭력대규가 각 단대 수련회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단대 학생회와 각 과반 학생회를 대상으로 교양을 실시했다. 그리고 각 단대별 섹터 기간에 상영할 수 있도록 총여 자체적으로 성교육 영상물을 제작했다.

•3월 3·8 세계 여성의 날 관련 자보전

•3월 한달 간 새내기 여성학 학교 개회

-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여성학 세미나를 진행하여 페미니즘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섹슈얼리티, 연애, 가족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영화보고 토론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월 Body Basics 성에 관한 솔직담백한 유니버스 (4/9~12)

- 여성 민우회에서 개발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일정 4월 9일 : <섹스북>을 학관 앞에 펼치다-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야외수업 (학관 앞에서 콘돔 사용법, 월경 팔찌 만들기, 성지식 테스트 등의 행사 진행)

4월 10일 : Say No! Act Out!-나의 몸과 권리를 위한 호신술 배우기 (정경애 선생님을 초청, 호신술을 배워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4월 11일 : 안 배워도 다 알까?-몸, 피임, 섹스...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와 함께 성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4월 12일 : 여성의 성, 그 현실과 환상 사이의 유쾌한 줄타기-영화상영 (영화 포르노그래픽 어페어 상영)

•5월 호주제 폐지 서명, 새싹터 물품 판매

- 대동제 기간 동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했고 새싹터에서 제작한 물품을 판매했다.

•6월 연애대란 (6/4~5)

- 현재 대학생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과정처럼 인식되고 있는 연애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연애 대백과사전"(자료집)을 통해 연애 관계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연애를 하는자 혹은 하지 않는자의 고민들을 경험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보고자 하였다. 들쭉날쭉 5일에는 나운경 선생님을 초청, '연애하면서 잘살기, 연애 안하고도 잘살기'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관계들을 제대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굳이 연애에 연연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수 있음을 다룬 강연을 개최했다. (자료집전시)

•예산자치제 여성학 수업 수시지원

- 1학기 동안 여성학 수업 시 진행된 프로젝트들을 예산자치제를 통해 수시 지원.

•5월 31일 여성학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Tea Party

- 한 학기동안 여성학 수업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 어떻게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잡아가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방학 중 현장활동대규 교양

- 방학을 맞이하여 농활, 환활 등의 현장활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활동대규의 교양을 현장활동 참가 단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2학기 | •9월 가을 여성제

- 연세 여성들의 한판 축제 자리를 준비중에 있다. 여성들의 놀이를 주제로 하게 될 듯.

•성폭력, 아직도 잘 모르겠다구요?(가) — 반성폭력 백서 제작

-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동의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성폭력 개념이나 해결 방법에 대한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건 해결 시에 어떠한 문제들이 제대로 된 해결을 저해하는지를 백서형식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0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나는 여성이다. 나는 남근의 '결여'로 인한 '결핍'을 선고받았다.

그들과의 다름은, 일동함의 반증으로,

그들과의 동일시는, '여자답지 않은 여자'로서의 낙인을.

어느 틈엔가 차이는 차별화하고,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속에, 언제나 뒤돌아보면 나는 없/다/

이에, 모반을 꿈꾸는 자들은 페미니스트라 불린다.

여기, '나'를 지우는 그들만의 언설에,

'이화'를 향한 거침없는 폭언에,

예쁜 여자,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대항하고, 거칠게 냉소하는 '우리'가 있다.

여기, '나'를 긍정하고, '이화'를 긍정하고 '여성'임을 긍정하는

'우리'가 있다.

여성위원회는요,

여성들을 사랑해요

성별 역할을 무시하는 곳이지,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없이 수다를 떨 수도 있구요,

회원자격 조건이 없는, 자치단위랍니다.

Tel : 02)3277-4708

Homepage : <http://mm.ewha.ac.kr/~lovewom>

■ 여위의 1년 나기

• 2월 전대기권 성폭력 사건 접수 및 해결

• 3월 페미니즘 문화제 (3월 26일~30일) (자료집, 엽서, 기념택지)

1. 첫째날: 개막제

• 퍼포먼스(차현수 씨 및 여위인들), 액션 댄스 축하공연, 공동체 놀이

2. 둘째날: 피임

•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강연(배란팔찌 만들기)

3. 셋째날: 몸

• 퍼포먼스(전소원씨), 사진전

4. 넷째날: 성폭력

• 퍼포먼스, 자료집(성폭력을 당하다-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꼬마 만화 자료집)

5. 다섯째날: 폐막제

• 여성영화제 상영작 "바비인형의 제국"

• 4월 반성폭력 학칙 제정기념! 떡 나눠주기

- 학교당국에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본관 앞에서 인간띠 잇기, 학생문화관 앞에서 반성폭력 학칙제정기념 떡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 5월 호주제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

- 여성연합 호주제폐지 운동본부와 총학생회, 여성위원회가 함께 서명운동과 설문조사.

• 5월 대동제

- 차 없는 거리전 사진 전시(머리하러 이대가자?!-우리가 바라는 이대 앞)

• 9월 스무살의 페미니즘 매체지 발간 예정

•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는 새내기 여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하는 여성주의 계발라 매체지로서 이번에는 아빠와 오빠, 두 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강원지역 대학내 여성주의자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꿈꾸는 발

<꿈꾸는 발>은, '여성'을 우리 몸의 '발'에 빗대어 사용하게 된 이름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지만 모두들 땀새나고, 더러운 것을 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발에 대해서는 다른 신체의 어느 기관보다도 소홀하기까지 하지요. 우리는 '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의 '여성'을 대하는 시각과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는!' <꿈꾸는 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자치단체 개념이 없는 원주에서는, 스스로를 자치단체라고 부른다는 것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보도 많고, 인간관계에 대한 긴장이 존재하는 <도시>공간과는 달리 <촌>에서는 그러한 긴장이 많이 완화되기 마련이라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갖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는 현실 추수주의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막연하고 흐리멍덩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全無한 상태인 '성'에 대한, 답론을 끄집어내기 위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들을 계속,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 나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아라 ▶ 011-9740-0232

E-mail : ko0232@freechal.com

Homepage : www.freechal.com/baldie

■ 꿈꾸는 발의 1년 나기

• 5/31 소규모 성교육 강좌 너... 나 알아? 그러는 너는... 나를 알아?

- '원주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장' 이남숙 선생님을 모시고, 매지 2학사(기숙사)에서 성교육 강좌 개최. 성지식 일반과, 성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한 다소 일방적인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콘돔 실습을 통하여 '생각보다 어려운, 남성성기에 콘돔의우기'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6월 여학생회 준비모임 결성

- 6월 초, 각 과 여학생회들은 '처음으로' <전체 여학생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다. 고민의 내용이 좀처럼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2학기 꿈꾸는 발 활동의 지상 목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아직 논의의 진전은 없다. 8월 1일, 웹진 YSWFEM의 첫호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공간적 간격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버려진 여학생 휴게실의 우리공간 만들기(2001년 지속사업)

- 2000년 2학기는, 여학생 휴게실에서 여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첫해였다. 그러나 학교측의 밀실행정으로 인한 공간 재배치는 우리의 쾌적한 여학생휴게실 공간을 빼앗아 버렸고 이미 공사가 들어간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손도 쓰지 못하고 이전 공간의 1/3정도밖에 되지 않는 구석진 자리로 휴게실이 옮겨지게 되었다. 학생처와의 제안에 따라 새 여학생 휴게실은 공간이 좁은 대신 TV, VTR, 냉온정수기, 위성안테나 등등의 설비들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내었지만 새 여학생 휴게실을 다시 우리의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과 노력을 계속해 내야 할 것이다.

• 연세대학교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및 그 시행세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

- 흔히 "반 성폭력 학칙"으로 불리고 있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이 연세대학교 학칙을 적용 받는 자 대상으로 제정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연세대학교 학생이니! 함께 적용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학칙 내용인 즉슨, "성폭력 특별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성폭력 상담소의 구성과 직무", 등 각 기관이나 위원회의 역할규정을 대부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의 실상은 특별위원회나 상담소와 같은 기구는 전혀 없고, 문제는 학생처에서조차 "학칙이니! 함께 적용 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 특종! (꿈꾸는 발) 신문발간

-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논의의 진행, 더 섬세하게 학우들에게 다가기를 목표로 구상해낸 것이 꿈꾸는 발 신문이었다. 1호 신문에서는 학내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에 청탁을 했던 "모성보호법"에 대한 이야기와,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그리고 6세 여아 엽기 성폭행 사건에 대한 칼럼기사와, 여성의 신체를 억압해온 의복에 관한 이야기를 '신윤복'의 그림들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 있다. 또 여성인물 조명에서는 나혜석을 다루었다.

부경지역 대학내 여성주의자들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월장

부산대학교는 여성주의 운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자주적 총여학생회가 총여학생회를 집권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2000년도 8월, 여성주의에 관심과 뜻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여성이 부산대학교 안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부산대학교 내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선배들이 없는 것에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산대학교 내에서 여성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합하기로 했고, 제 1회 부산대학교 페미니즘 문화제를 치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후의 행사에서 한 명, 한 명 덧붙여졌고, 지금도 수는 적지만 부산대학교 안에서의 여성운동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homepage : <http://home.pusan.ac.kr/~wallzang/>

■ 부산대 여성주의 활동가 1년 나기

• 2월 기지촌활동

- 2000년 6월에 한 활동가가 전학협(전국학생회협의회)과 함께 기지촌활동을 수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고, 기지촌활동에서 얻은 바가 많아 2000년 겨울 기지촌활동에서는 부산대학교의 이름으로 기지촌활동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5명이 기지촌활동교양학교를 다녀왔고, 이 중 2명의 활동가가 2001년 2월에 기지촌활동을 수행하였다.

• 3월 8일 성매매천국 대한민국 장례식(퍼포먼스)

-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주의 공동체 식탁과 오븐을 준비하고 있던 여성주의 웹진 월장이 함께 성매매천국 대한민국의 장례식을 퍼포먼스로 펼쳐냈다. 2월에 부산 완월동에서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발맞추어 부산대학교 안에서 성매매에 대한 이슈화와 문제제기를 시도한 행사였다. 이 때 기지촌활동과 기지촌활동 교양학교를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지촌여성문제, 완월동화재사건, 청소년성매매문제등을 흥겨운 장례식 형태의 퍼포먼스로 풀어냈다.

• 2001년 4월 25일 -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월장 오픈

- 2001년 1월부터 여성주의 웹진을 준비하던 월장이 1호를 오픈했다. 1호 특집기사인 '도마위의 예비역'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다. 학내에서도 월장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으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또한 높아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에서 여성주의에 관심있는 몇몇 여학생들을 접하게 되기도 했다. 방증인 지금, 매주 '페미니즘 사상'의 공개 세미나를 하고 있다.

■ 현재 부산대학교에는 여성주의 활동 단위가 월장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어교육과에 '자궁'이라는 여성학회가 있었지만, 활동을 이어나갈 사람이 생산되지 못해 2000년도 말에 없어졌습니다. 2000년도 6월에 만들어졌던 여성주의 공동체 '식탁' 또한 식탁 주성원의 월장으로의 결합으로 인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장팀은 올해 총여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되는 활동인자와 조직력의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전문성과 세련성을 무기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성주의 활동이 태동한 지 1년도 안되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 선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